

M 45-84 | 2007. 8 |

제 84 호

세계농업뉴스

WORLD AGRICULTURAL NEWS

2007. 8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목 차

농업·농정 동향

일본,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동향	3
일본,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동향	11
일본, 가족경영협정제도 개요	18
중국, 2007년 상반기 채소시장 동향	24
중국, 운남성 화훼산업 개황	31
EU, 우유 및 유가공산업 및 관련정책 개요	39
EU, 비승인 GMO의 가축생산 등에 대한 영향분석	50
미국, 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61
호주, 2007년 2분기 축산업 전망	67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7년 8월 농업협상 동향	81
-----------------------------	----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7. 8)	89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8)	102

통계자료

세계 쌀 통계	109
---------------	-----



농업·농정 동향

일본,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동향

일본,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동향

일본, 가족경영협정제도 개요

중국, 2007년 상반기 채소시장 동향

중국, 운남성 화훼산업 개황

EU, 우유 및 유가공산업 및 관련정책 개요

EU, 비승인 GMO의 가축생산 등에 대한 영향분석

미국, 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호주, 2007년 2분기 축산업 전망

일본,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동향

강 혜 정*

일본 여성농업인은 2005년 전체 농업 취업인구의 53.3%를 차지하며 일본 농업 및 농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담당 작목은 노지채소가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벼농사 16.4%, 시설채소 15.9%, 과수류 11.5% 등의 순이다.

일본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다. 2003년 6월 인정농업인제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공동경영자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게 되어 인정농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8년 1.49%에서 2006년 2.44%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위원 비율도 1990년 0.15%에서 2005년 4.12%로 증가하였고, 여성 농협 조합원수도 동기간에 12.05%에서 16.10%로 증가하였다.

1. 여성농업인의 인적 특징

일본의 농업 취업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0년 60.2%에서 2005년 53.3%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비중은 여전히 전체 농업 취업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농업 및 농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kang@krei.re.kr 02-3299-4286

표 1 농업취업인구에 차지하는 여성농업인 비율의 추이

단위: 천 명, %

	1990	1995	2000	2004	2005
농업취업인구	5,653	4,140	3,891	3,622	3,353
여성농업인 (비율)	3,403 (60.2)	2,372 (57.3)	2,171 (55.8)	2,000 (55.2)	1,788 (53.3)

주 : (1) 농업취업인구는 만16세 이상의 세대원수(1995년 이후는 만15세 이상의 세대원)이며 자영업에 종사한자 혹은 자영업과 기타의 직업 모두에 종사한 자 중에서 농업을 주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의 합계를 말한다.

(2) 1995년 이후는 판매농가의 수치임.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 동태조사」

30~60대 농업 취업인구의 약 60%를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40대와 50대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59%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농업 주종사자 비율 분포는 50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40대와 60대에서도 여성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성별 연령별 농업취업인구 분포

단위: 명,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남성	62,495 (62.8)	59,554 (62.8)	50,499 (41.0)	97,549 (40.6)	194,583 (40.6)	383,730 (43.5)	715,988 (50.0)	1,564,398 (46.7)
여성	37,060 (37.2)	35,243 (37.2)	72,688 (59.0)	142,504 (59.4)	284,487 (59.4)	499,211 (56.5)	716,999 (50.0)	1,788,192 (53.3)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도 농림업센서스」

표 3 성별 연령별 농업 주종사자 수 분포

단위: 명,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남성	1,079 (82.6)	28,566 (79.4)	45,692 (62.4)	92,068 (50.7)	185,006 (48.4)	338,873 (50.4)	522,880 (58.4)	1,214,164 (54.2)
여성	227 (17.4)	7,415 (20.6)	27,484 (37.6)	89,348 (49.3)	197,183 (51.6)	333,049 (49.6)	371,802 (41.6)	1,026,508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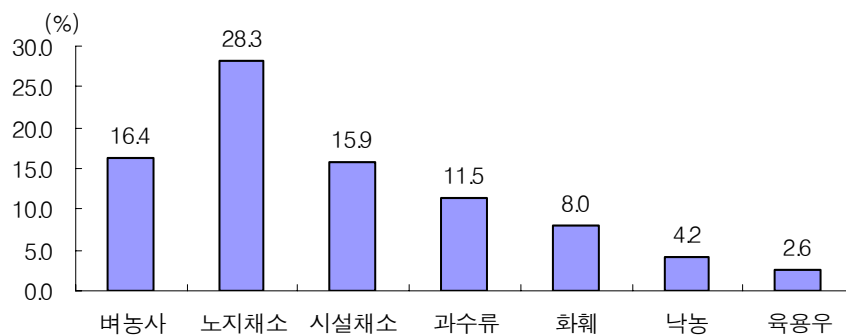
주 : 농업 주종사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원(농업취업인구)중에서 조사 날짜로부터 과거 1년간 주된 직업상태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자료 : 농림수산성 「2005년도 농림업센서스」

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특징

1년 동안 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여성이 있는 농가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중요한 책임을 맡아 담당하고 있는 영농 분야가 있는 농가는 약 70.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주요 담당 작목을 보면 노지채소가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벼농사 16.4%, 시설채소 15.9%, 과수류 11.5% 등의 순이다.

그림 1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영농 분포(복수 응답)



자료 : 「농업구조 동태조사: 여성의 취업구조 및 경영참가현황조사」 (2003년 7월)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40%, 남성의 60%가 경영자 혹은 공동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 혹은 특정 부문의 경영을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방침은 남편 혹은 부모 등이 결정하지만 나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한다’라는 응답도 50%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정도의 여성농업인들이 여전히 농업보조자로서의 소극적인 경영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 생산을 유지 발전시키고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목표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인정농업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도 당연히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다.

표 4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의향

단위: %

농업경영 참여 의향	남성	여성
1. 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를 도맡다 관리하고 싶다	7.2	5.3
2. 공동경영자로서 농업경영전체를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28	14.8
3. 공동경영자로서 특정부문의 경영을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25.4	17.1
4. 경영방침은 남편 혹은 부모 등이 결정하지만 나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한다	35.4	49.9
5. 지시 받은 농작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좋다	3.9	11.7
6. 응답 없음	0.9	1.2

자료: 식료·농림수산업, 「농가의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의향조사」 (2004년 12월)

그러나 가족경영의 경우 2003년 6월 이전까지는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경영을 주재하는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부부, 부모와 자녀 등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족경영에서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나 농업후계자에 대해서도 공동경영인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3년 6월 인정농업인제도의 운용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동경영자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인정농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8년 1.49%, 2004년 2.02%, 2006년 2.4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부 인정농업인 공동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①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신청을 하는 명의인이 모두 농지법상의 세대원일 것, ② 가족경영협약 등이 체결되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해당 농업경영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해당 명의인 모두에게 귀속할 것, ③ 또한 농업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명의인 모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명확할 것, ④ 해당 가족경영협약 등의 상호결정이 준수되고 있을 것 등이다.

표 5 여성 인정농업자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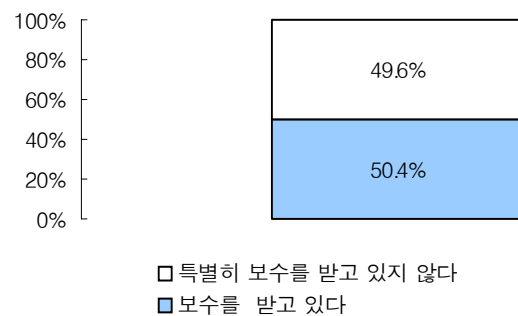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수	1,780	2,140	2,539	2,746	3,149	3,402	3,685	4,125	4,896
비율	1.49	1.57	1.75	1.83	1.93	1.98	2.02	2.15	2.44

주: 2004년 이후의 인정농업자는 부부에 의한 공동신청을 포함함.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정책과 조사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영농 유형별 인정현황」

일본 여성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면서 급여 혹은 보수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50.4%로, 과반수의 여성농업인은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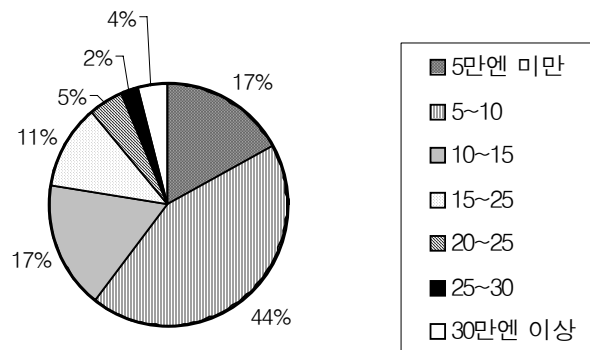
그림 2 보수 및 급여 등의 수취 현황



자료 : 「농업구조 동태조사-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가현황조사-」 (2003년 7월)

또한 보수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한 달 평균 수취금액은 10만 엔 이하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보수액도 적은 편이다. 5~10만 엔 보수를 수취하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고, 30만 엔 이상은 4% 정도로 나타났다. 일본 여성농업인의 절반이 농가 내에서 일정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위가 우리나라 여성농업인들보다 높은 편이나, 여전히 수취 보수액은 적어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3 여성농업인의 보수 수취금액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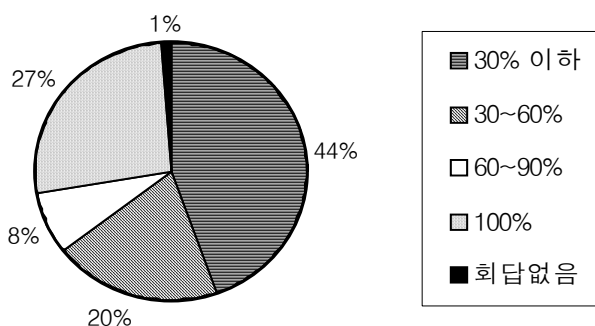


자료 : 「농업구조 동태조사-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가현황조사-」 (2003년 7월)

여성농업인 본인이 받은 보수를 ‘전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응답한 자는 27.2%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율이 50% 이하’라고 응답한 자는 62.8%이다. 즉, 보수를 받고 있어도 명목상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농업경영에 있어서 보수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의향 조사 결과, 90%이상이 보수를 받고 싶어 하며, 그 수취방법에 대해서는 약 60%의 여성농업인이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또는 농업수익에 따라 일정비율로 보수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 한 달 수취 보수액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 비율 분포



자료 : 「농업구조 동태조사-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가현황조사-」 (2003년 7월)

표 6 보수 수취방법에 대한 여성농업자의 의향

설문항목	단위: %
	응답 비율
정규적(월급, 사분기 마다 등)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싶다	34.1
농업수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수를 받고 싶다	21.5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서 돈이 필요할 때 보수를 받고 싶다	24.5
경영주 판단으로 보수를 받고 싶다	10.8
보수는 필요 없다	4.3
기타	1.5
응답 없음	3.2

자료 : 식료·농림수산업, 농산어촌에 있어서의 의향조사 「농가의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의향조사」 (2004년 12월)

3.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

농업위원 혹은 농업협동조합 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0년 여성농업위원 비율은 0.15%에서 2005년 4.12%로 증가하였고, 여성 농협 조합원수도 동기간에 12.05%에서 16.10%로 증가하였다.

농촌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사고에 깔려 있는 남성이 한 집안을 대표한다는 뿌리 깊은 의식과 가사노동·육아·노인 봉양 등의 여성농업인의 가중한 노동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표 7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

단위: 명, %

	1990	1995	2000	2004	2005
농업위원수	62,524	60,917	59,254	56,348	45,379
여성농업위원	93 (0.15)	203 (0.33)	1,081 (1.82)	2,391 (4.24)	1,869 (4.12)
농협 정조합원수	5,537,547	5,432,260	5,240,785	5,045,472	4,997,797
여성조합원수	667,468 (12.05)	707,117 (13.02)	746,719 (14.25)	786,357 (15.59)	804,586 (16.10)
농협 임원수	68,611	50,735	32,003	23,742	22,799
여성 농협 임원수	70 (0.10)	102 (0.20)	187 (0.58)	364 (1.53)	438 (1.92)

주: 농업위원 수는 10월 1일 자료이고 농협자료는 각 사업 년도 말 (농협에 따라 4월 말~3월말) 자료임.

자료: 농협조합원수, 임원 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종합농협통계표」, 농업위원 수에 대해서는 경영국 구조개선과 조사 자료임.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JA전중¹⁾은 제24회 JA전국대회(2006년 10월 11일)에서 ‘청년·여성의 정조합원 가입촉진’, ‘여성의 JA이사 등 선출 (JA 조직수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이 목표)’ 등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전국농업회의소는 의

1) JA는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의 줄임말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全國農業協同組合中央會 <http://www.zenchu-ja.or.jp/>)의 약칭임.

육적인 여성농업인 등의 선거의원 입후보 촉진, 선임의원으로서의 등용 촉진 (한 농업 위원회 당 두 명 이상의 여성농업위원 등용이 목표) 등을 추진하는 ‘신·농(農)위(委) 조직 활동개혁 프로그램’을 도도부현 농업회의 회장회의(2004년 11월 11일)에서 결정한 바 있다.

참고자료

<http://www.maff.go.jp/danjo/>(일본농림수산성 경영국 보급여성과 홈페이지) 발췌정리

일본,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동향

강 혜 정*

일본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9,050건을 기록하였다. 개인 창업보다는 공동 창업이 많아 2005년 공동 창업은 전체 여성 창업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창업 분야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및 식품 가공품 생산, 직판장 설립 및 판매, 농촌관광 등이다. 농산물 식품가공이 75% (6,816건), 직판장 판매·유통이 44% (3,999건)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을 이용한 창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사업 경영체 규모는 영세하고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창업을 한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0대가 44.1%, 50대가 33.7%로 전체 여성 창업의 78%를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대에서는 0.1%, 30대에서는 1.1%로 젊은 세대의 창업활동이 부진한 편이다.

1. 여성농업인 창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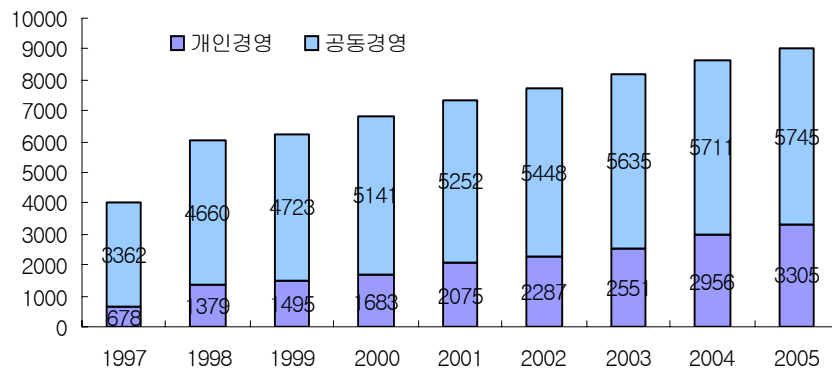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및 식품 가공품 생산, 직판장 설립 및 판매, 농촌관광 등의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도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9,050 건이 보고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ng@krei.re.kr 02-3299-4286

공동 경영 창업이 개인경영 창업 비율보다 높으나, 개인경영창업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7년 전체 여성농업인 창업에서 공동경영 비중은 83%였으나, 2005년은 63%로 감소하였다.

그림 1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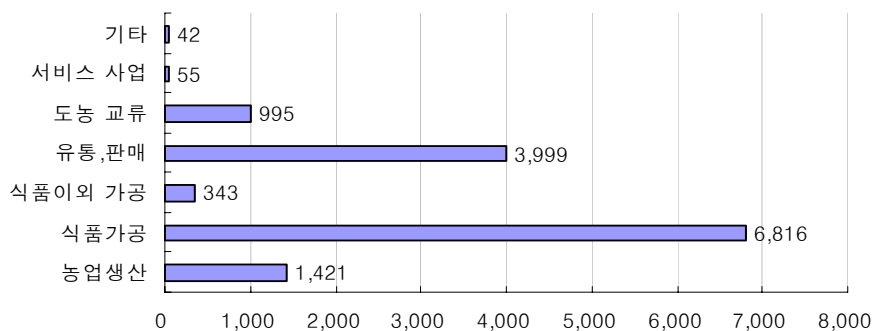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에 의한 창업활동 실태조사」

창업 활동내역을 보면 농산물 식품가공이 75% (6,816건), 직판장 판매·유통이 44% (3,999건)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을 이용한 창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매출금액 1,000만 엔 이상의 창업에서는 유통·판매 활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산물 식품가공, 도농 교류 등의 순이다.

그림 2 여성농업인의 창업 활동 내역 (복수 응답)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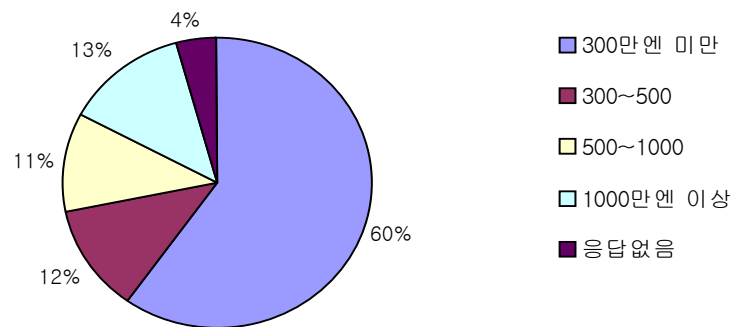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에 의한 창업활동 실태조사」

매출액이 300만 엔 미만인 경영체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경영체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공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도 농촌여성 창업 8,667건의 매출액은 624억 5천만 엔에 이르며 총매출액을 창업건수로 나눈 창업 건당 평균 매출액은 735만 엔이다. 매출액 5천만 엔 이상의 경영체는 186건으로 전체 창업건의 2%정도이지만 전체 매출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5천만 엔 이하의 사업체수는 전체 여성농업인 창업의 98%를 차지하나 매출액 비율은 64%이다. 또한 매출액 5천만 엔 이상의 경영체들도 10천만 엔 이하에 67%가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체로 60% 이상이 5천만 엔 이하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그림 3 여성창업의 매출액 분포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에 의한 창업활동 실태조사」

표 1 여성 창업의 매출액과 창업건수

	5,000만 엔 이하	5,000만 엔 이상	합계
매출액 합계 비율	399억6,900만 엔 64%	224억8,100만 엔 36%	624.5억 엔 100%
창업건수 비율	8,106건 98%	186건 2%	8,292건 100%

자료: 농업공학연구소 「2005년도 농촌생활 종합조사 연구사업보고서」

표 2 매출액 5천만 엔 이상의 경영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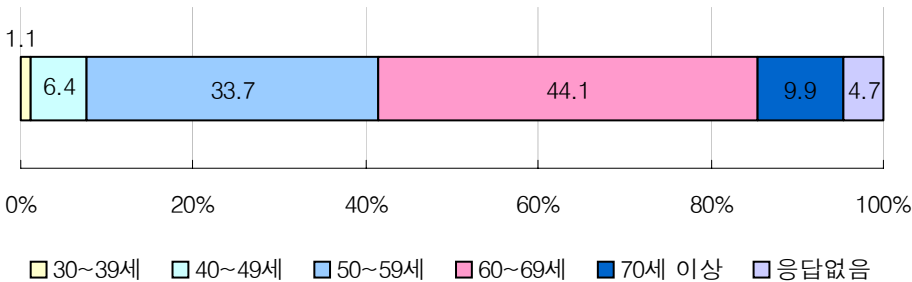
단위: 천만 엔, 건

매출액	5~7	7~9	9~11	11~16	16~21	21~26	26~31
건수	57	41	20	23	16	7	4
매출액	31~36	36~41	41~46	46~51	51~56	56~61	응답없음
건수	0	1	0	2	2	2	11

자료: 농업공학연구소 「2005년도 농촌생활 종합조사 연구사업보고서」

창업을 한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0대가 44.1%, 50대가 33.7%로 전체의 약 80%를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대에서는 0.1%, 30대에서는 1.1%로 젊은 세대의 창업활동이 매우 부진하다.

그림 4 창업한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에 의한 창업활동 실태조사」

2.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제도

창업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2002년부터 농업개량자금에 여성창업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명의로 무이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농업신용기금협회의 채무 보증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기준은, ① 인정농업인, 기타 농업후계자이고

자신이 재배한 농축산물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경영을 시작하려는 여성, ② 농업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의 경우는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등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3 대부대상 여성농업인 및 필요 요건

대상자	필요한 요건
① 인정농업인	
② 인정취농인	- 경영개시 후 5년 이내, 또는 취농 계획 인정 후 10년 이내
③ 주업농업경영자 및 이것에 준하는 자	-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과반(법인의 경우는 농업관련 매상이 총매상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 또는 농업조수익 200만 엔 이상(법인의 경우는 1,000만 엔 이상)일 것 - 청장년(18세 이상 60세미만) 가족농업종사자가 있을 것(법인의 경우는 청장년자 상시고용자가 있을 것) - 부기기장을 하고 있을 것(실시할 전망이 확실한 경우 포함)
④ ①부터 ③(가족경영에 한함)의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으로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 경영의 일부 부문에 대해서 주재권이 있고, 또한 그 부문의 경영에 대한 위험부담 및 수익처분권이 명확히 되어 있을 것(구분경리, 부기기장, 농업용 계좌 개설 등)
⑤ ①부터 ④까지의 사람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는 임의단체	- 대표자, 대표권의 범위 등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규약을 가지고 있을 것
⑥ 도입계획에 근거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방식을 도입하는 에코파머(eco-farmer)	

자료: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여성농업자 지원제도」(농촌자원개발연구소 번역)

3. 여성농업인 창업 사례

몇 가지 일본 여성농업인 창업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1. 잡곡전문점 : 추봇코 만마

- 이와테(岩手)현 니노헤(二戸)시
- 매출액(2005년도): 1,900만 엔
- 방문자수(2005년도): 3.3만 명

1998년에 결성된 농가 주부 모임이 모여 2002년에 여성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가 레스토랑 ‘추봇코 만마’를 개업했다. 여태껏 쌀밥에 섞어서만 먹었던 잡곡을 국물요리, 제철의 야채 등과 조합시킨 주 요리, 반찬, 후식 등으로 폭 넓게 활용한 요리가 인기를 끌어 인근 지역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다. 또한 향토 음식문화 및 잡곡 요리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방문하여 식당의 역할을 넘은 지역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3.2. 메밀국수집 : 아라가미노 고향 가사소바

- 나라(奈良)현 사쿠라이(櫻井)시
- 매출액(2005년도): 8,900만 엔
- 방문자수(2005년도): 7.7만 명

1994년에 가사소바 재배촉진 협의회 여성부(48명)가 지역 특산물인 메밀의 생산 증진을 위해 가공, 판매, 메밀국수 요리체험을 개시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생메밀국수 음식점을 개점하고 호평을 받았다. 2002년에는 지역의 71세대 모두가 참여하여 유한회사 ‘아라카미 고향 가사소바’를 설립했다. 2003년에는 메밀국수집 분점을 다른 지역에도 개점했다. 식당은 100% 이 지역에서 생산된 메밀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게에서 바로 메밀을 갈고 밀고 삶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메밀국수를 찾는 손님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3.3. 지역특산물 가공 및 판매 : 프레시 시오카제 고향

-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시
- 매출액(2005년도): 8,500만 엔
- 방문자수(2005년도): 7.1만 명

1999년 지역 특산물 개발에 의욕적인 15명의 여성농업인들이 ‘추노시마 시오카제 그룹’을 발족하여 수익성 있는 가공 활동을 목표로 가공과 직판, 식당 사업에도 도전했다. 2000년에 식당, 직판, 가공장의 종합시설로서 ‘시오카제 고향 추노시마’를 개점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책임감 있는 운영체제 마련, 경영관리 능력 향상, 취업조건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 2005년에는 법인으로 등록하였다.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신선한 요리를 제공함으로써 섬지역의 음식문화와 풍습을 관광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maff.go.jp/danjo/>(일본농림수산성 경영국 보급여성과 홈페이지) 발췌정리

일본, 가족경영협정제도 개요

강 혜 정*

농가내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보수와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농가 경영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원들 상호간의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체결한 것이 가족경영협정이다.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제도는 독일의 ‘농지양도계약법’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간의 협정으로 시작하여 부부간의 협정으로 확대되었다.

일본 농가의 가족경영협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가족협정 체결 농가는 전국 34,521가구이며, 체결농가 중 73%는 인정농업인이다.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농업 경영방침, 노동시간과 휴일, 농업노동 및 역할분담(작업분담, 부기기장 등), 노동보수(일급·월급) 등을 포함한다.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1. 일본 가족경영협정 제도의 의의

가족구성원 성별을 불문하고 의욕을 가지며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각 가족원의 역할과 책임, 보수와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의욕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원들이 상호간의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체결한 것이 ‘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ng@krei.re.kr 02-3299-4286

족경영협정'이다.

가족경영협정은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의욕이나 경영의욕을 높이며 원활한 경영계승을 위해서 농업경영의 취업조건과 환경개선, 농업경영의 계승과 상속, 일상생활의 역할과 책임분담 등을 결정한다.

가족경영협정은 영농 후계자의 경제 및 정신적 자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안정된 농업경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농가 내 여성의 농업노동은 물론 농업경영 관리활동이나 가사, 육아, 노인수발 등의 노동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경영 의사결정 참여,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개별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제도는 독일의 '농지양도계약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또는 영농승계자)간의 협정으로 시작하여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부중심의 농가형태로 바뀌면서 부부간의 협정으로 확대되었다.

2. 일본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실태

일본 농가의 가족경영협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가족협정 체결 농가는 전국 34,521가구로 2005년도에 비해 2,401가구, 즉 7.5%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경영협정 체결농가 34,521가구 중 73%는 인정농업인이다.

표 1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수 추이

단위: 가구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협정 체결 농가	5,335	7,205	9,947	12,030	14,777	17,200	21,575	25,151	28,734	32,120	34,521

자료 : 농림수산성 부인·생활과(1999년), 보급과(2000~2003년), 보급·여성과(여성·취농과)(2004~2006년) 조사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표 2 협정 체결 농가의 구성 비율

	협정농가수	비율
전체	34,521	100%
인정농업인	25,117	73%
법인	647	2%
기타	8,757	25%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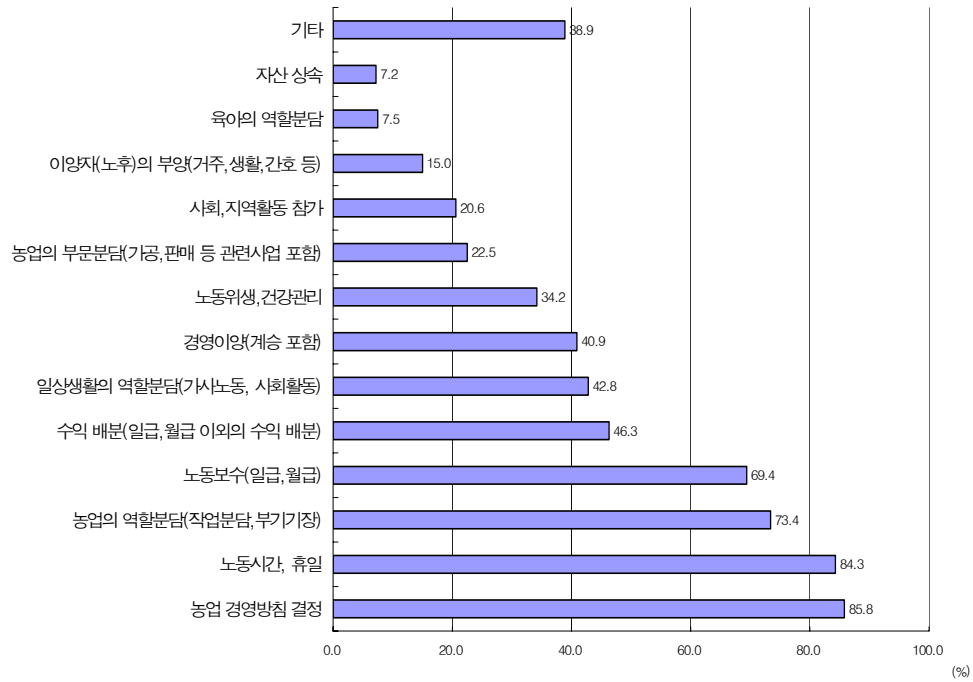
가족경영협정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가족이 의논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① 노동보수, 휴일, 역할분담, 작부계획, 소득목표, 경영이양 등 농업경영의 현상과 목표, ② 가사, 육아, 노인수발의 역할분담, 공동가계비 지출방법, 주거생활방법, 생활목표 등 일상생활의 현상과 목표, ③ 가족의 생각이나 요구 및 과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협약 내용은 매년 혹은 수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정하거나, 혹은 후계자의 취농이나 결혼, 경영주의 경영이양, 가족의 사회참여, 경영내용개선 등이 있다면 가족 전원이 의논하고 협약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각 농가 실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2006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업 경영방침 결정’이 8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동시간·휴일’이 84.3%, ‘농업에서의 역할분담(작업분담, 부기기장 등)’이 73.4%, ‘노동보수(일급·월급)’이 69.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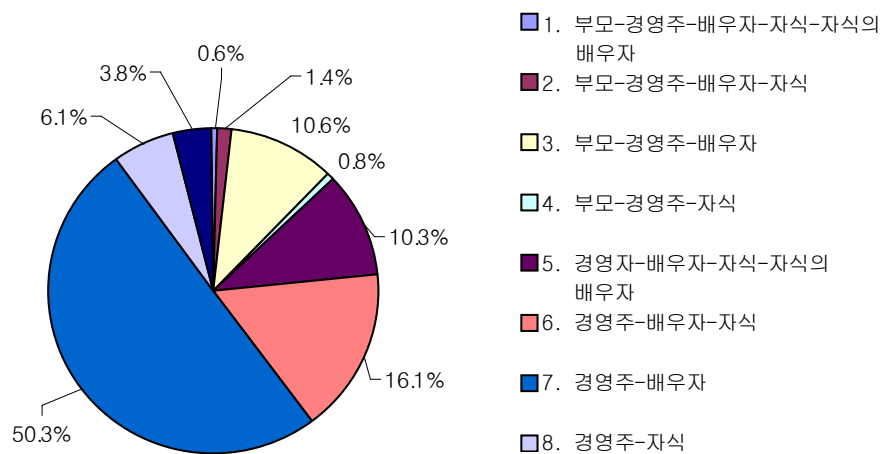
협정을 체결한 가족원은 경영주, 경영주의 배우자, 후계자, 후계자의 배우자, 경영주의 부, 모 등이 될 수 있다. 즉, ①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 ②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후계자, ③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후계자+후계자의 배우자, ④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경영자의 부+ 경영자의 모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중 경영주-배우자 사이에서의 가족경영협정 체결이 가장 많으며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가족경영협정 계약내용 (복수응답)



자료: 농림수산업성 보급·여성과 조사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그림 2 가족경영협정 체결 대상 범위



자료: 농림수산업성 보급·여성과 조사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경영협정 체결 순서는, ① 농업경영 현상이나 과제, 가족의 요망 등을 가족끼리 의논 또는 농업위원회나 농업개량보급센터 등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조언, ② 의논하여 합의된 내용에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실현가능한 협약서를 작성, ③ 문서화된 협약서를 조인하는 순이다.

협약 조인에 관해서는 농업위원회, 농업개량보급센터, 농협 등의 담당자에게 제3자로 입회하도록 부탁하여 조인을 받는 방법, 개개인의 가족단위로 협약 내용을 조인하는 방법,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다른 농가들과 함께 합동으로 조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입회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체결 시 농업위원회 등 관계자가 입회인이 되면 사회적 인지를 얻을 수 있고 협약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다.

(1) 인정농업인제도: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가족경영협약 체결 등을 요건으로 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인정농업인의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경영자인 여성농업인, 농업후계자도 공동 명의로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다.

(2) 농업인연금: 농업인연금의 피보험자이면서 인정농업인, 청색신고자¹⁾ 등 의무 있는 경영주와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자, 후계자가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기본 보험료(20,000엔)에 대하여 국고에서 일정비율을 보조한다.

(3) 농업개량자금: 개별 농업경영에서 가공분야, 신작물분야, 신기술에 도전하려는 배우자가 농업개량자금을 빌리려고 할 때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인정하

1) 신고 납세제도의 하나로써 정부(세무서)가 규정한 장부를 갖추고 청색용지에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는 제도이다.

고 있다.

가족경영협약 보급 초기에는 협약 자체에 대해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반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 체결하고 있는 농가의 사례 설명, 시정촌 농업위원회, 농업개량보급센터의 담당자의 꾸준한 설득과 교육 등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활한 가족경영협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부부중심의 의식교육과 함께 이미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한 선도농가의 홍보 및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21세기의 농업·농촌, 제4권 「일본농촌의 주체형성」의 제 2절 “가족경영협정과 농촌여성 창업”에서 발췌정리

중국, 2007년 상반기 채소시장 동향

리 금*

중국 상반기 채소생산은 비교적 좋은 기후조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좋은 상황을 나타내었다. 1분기의 ‘따뜻한 겨울’기후로 월동채소의 생육이 빨라져 생산주기가 단축되었고 공급량이 증가하였다. 2분기에는 남부 부분지역의 홍수피해로 채소 운송에 차질이 발생, 일부지역에서는 채소가격의 변화폭이 비교적 컸다. 중국의 상반기 채소가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였고 전년 동기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상반기의 채소수출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 채소 생산과 가격의 변화 동향

상반기 기후조건은 총체적으로 채소 생산에 유리하였다. 2007년 초부터 주요 채소 작물 주산지의 광열조건이 비교적 좋았고 강수량이 대체적으로 적합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단계성 가뭄, 폭우홍수, 저온냉해, 고온 등 기상 재해가 발생하여 채소생산은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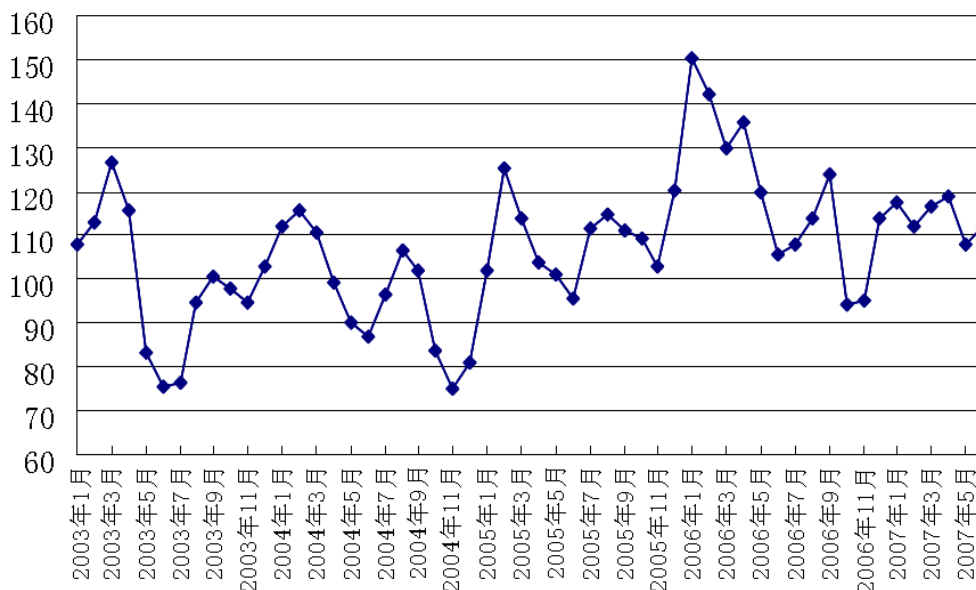
월별로 본다면, 1월에 전국의 대부분지역의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다소 높아 시설채소의 성장발육에 유리하였다. 그러나 남부지역에는 저온, 눈비, 일조량이 적은 날씨로 시설채소의 정상 생육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2월에 들어서서 가지류 채소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고 화남지역의 대부분이 광열조건이 모두 좋아 채소의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lijin95@snu.ac.kr 02-880-4898

성장에 유리하였다. 3월에는 동북지역이 폭설의 피해로 비닐온실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채소생산에 악영향을 미쳤다. 4월 이후 북부의 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시작하여 채소생산에 불리하게 되었지만 남부지역의 광열조건은 좋아졌다. 6월에는 국부지역에서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 채소생산과 운송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의 채소가격은 총체적으로 전년 동기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정보망의 관측에 의하면 상반기 중국의 채소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림 1 중국 채소도매가격 지수, 2003~07년



주: 기준년도 2000년을 100으로 계산

성(省)별로 보면, 전년 동기보다 가격 하락폭이 비교적 큰 것은 감숙성, 산둥성, 광둥성, 상해시와 서장자치구이고 상승폭이 비교적 큰 것은 신강자치구, 복건성, 내몽고자치구, 중경시와 운남성이다.

품목별로 보면 청죽순, 무, 교백(茭白), 연뿌리, 양파, 표고버섯 등 채소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80% 상승하였고 당근, 동과, 양배추, 셀러리, 생강 등 채소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하락하였고 그 중 당근의 가격 하락폭은 50%에 이르렀다.

표 1 2007년도 상반기 채소도매가격(전국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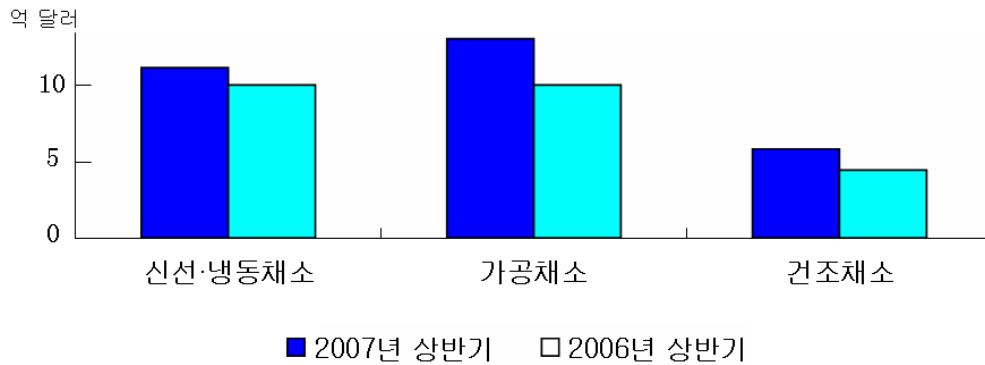
품 목	도매가격(위안/kg)	전월 대비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배 추	0.698	13.5	-9.9
양배추	0.792	38.3	-21.0
셀러리	1.145	7.0	-20.3
당 근	0.860	-18.0	-50.9
감 자	1.288	23.2	-4.4
두 각	4.092	85.6	6.2
오 이	2.196	42.4	-3.7
가 지	2.734	132.0	-0.1
피 망	3.168	124.8	4.4
토마토	2.107	49.4	-14.2
양 파	1.540	2.1	57.3
생 강	2.225	-13.8	-27.1
마 늘	3.436	-1.9	-13.3

2. 채소 수출 동향

중국의 상반기 신선·냉동채소, 가공채소, 건조채소의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가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채소의 수출은 가공채소와 신선·냉동채소가 주를 이루었다. 해관통계에 의하면 2007년 중국의 채소(신선·냉동채소, 가공채소, 건조채소를 포함 이하 상동) 수출총량은 387.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수출액은 3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하였다. 그 중 신선·냉동채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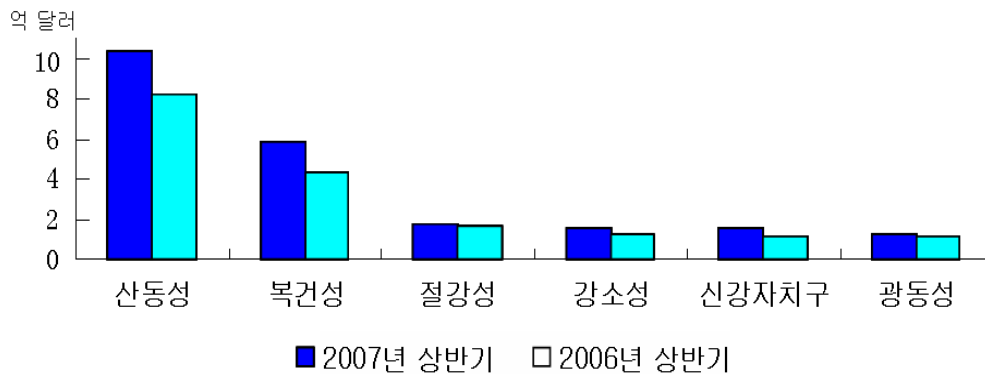
수출액은 1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하였고 채소 수출총액의 37.0%를 차지하였다. 가공채소의 수출액은 13.1억 달러로 30.7% 증가, 채소 수출총액의 43.5%를 차지; 건조채소의 수출액은 5.9억 달러로 31.1% 증가, 채소 수출총액의 19.5%를 차지하였다.

그림 2 2007년 상반기 중국 채소 분류별 수출액



산둥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신강자치구, 광둥성은 중국의 주요 채소 수출 성(자치구)이다. 그 중 산둥성의 상반기 수출액은 10.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 이는 전국 제일이다. 복건성의 수출액은 5.9억 달러로 27.1% 증가, 절강성, 강소성, 신강자치구, 광둥성의 수출액도 모두 증가추세였는데 증가폭은 각각 8.3%, 21.1%, 24.9%와 13.3%이다.

그림 3 2007년 상반기 중국 채소 지역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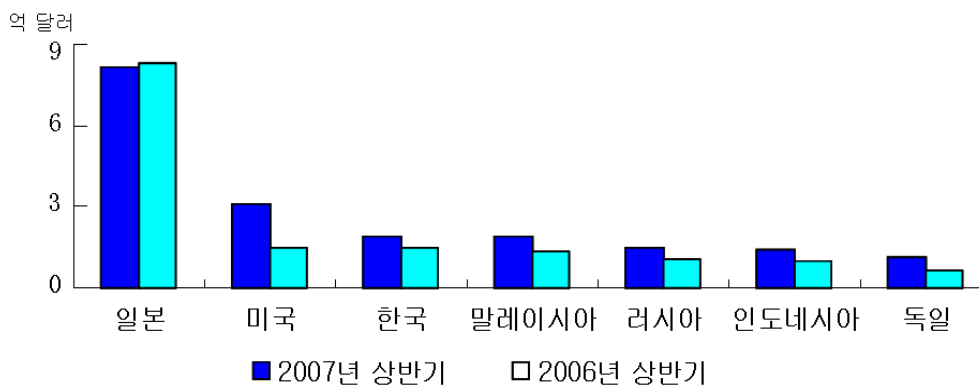


일본은 여전히 중국의 제일 주요한 채소 수출국이다. 상반기 대일본 수출액은 8.2억 달러,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하락한 수치로서 중국 채소 수출총액의 27%를 차지하였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도 중국의 채소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상대국으로서 2007년 상반기 수출액은 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 중국 채소 수출총액의 15.9%를 차지하였다.

미국, 한국, 러시아, 독일에 대한 채소 수출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하였고 독일은 47.1%, 러시아는 28.8%, 한국은 23.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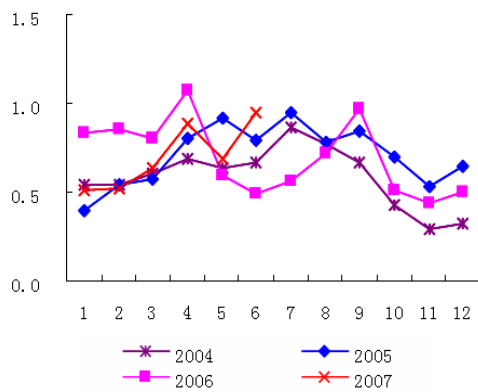
그림 4 2007년 상반기 중국 채소의 국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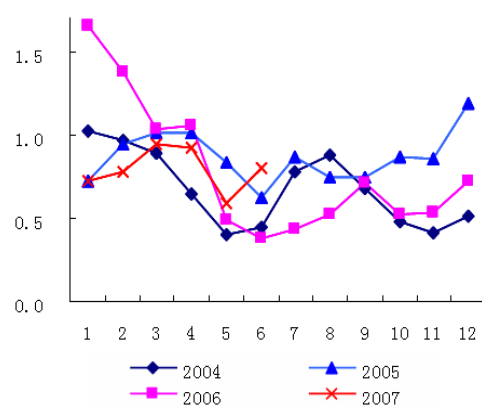
3. 2004~07년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다음 그림은 중국의 배추, 양배추, 감자, 당근, 오이, 토마토, 마늘, 생강, 셀러리, 두각, 피망, 양파의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의 도매가격 추세이다(단위: 위안/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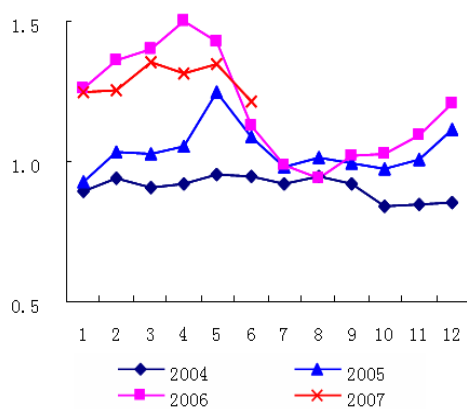
2004-07년 배추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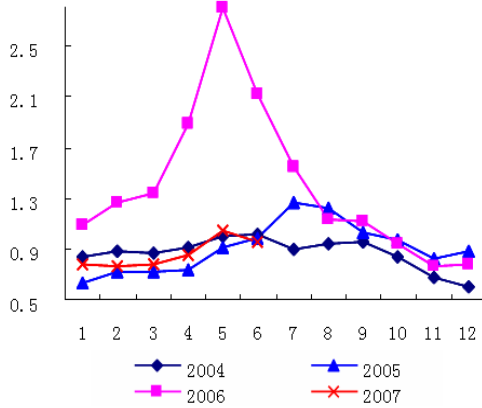
2004-07년 양배추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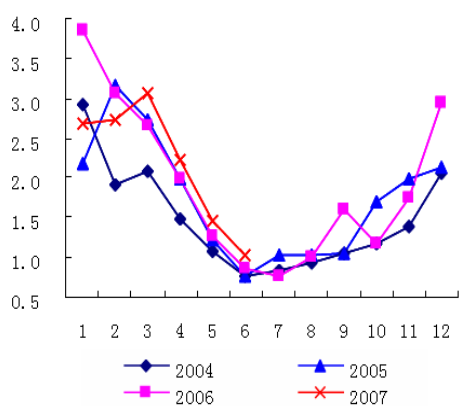
2004-07년 감자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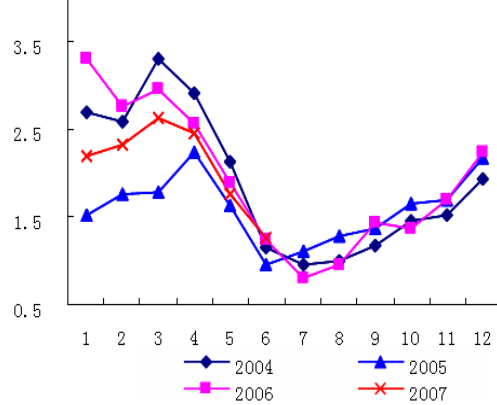
2004-07년 당근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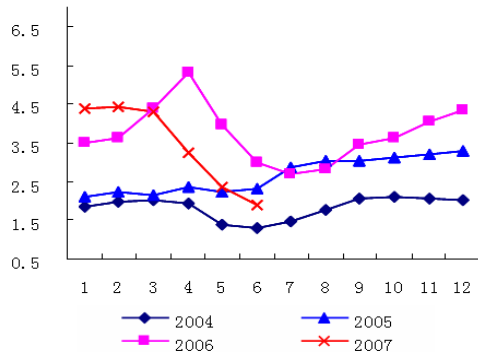
2004-07년 오이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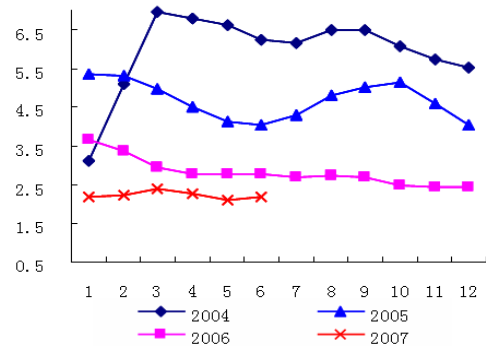
2004-07년 토마토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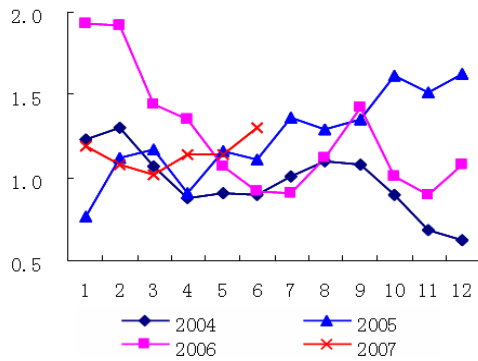
2004-07년 마늘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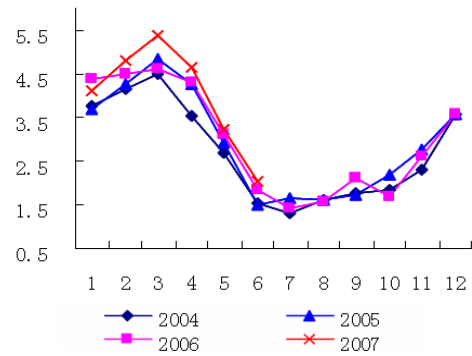
2004-07년 생강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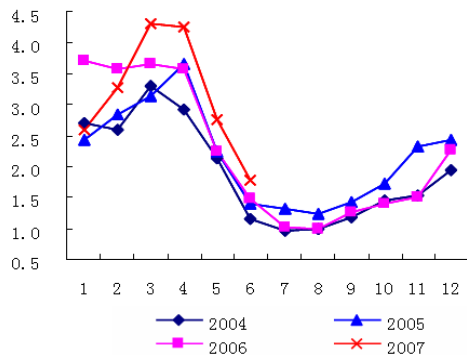
2004-07년 셀러리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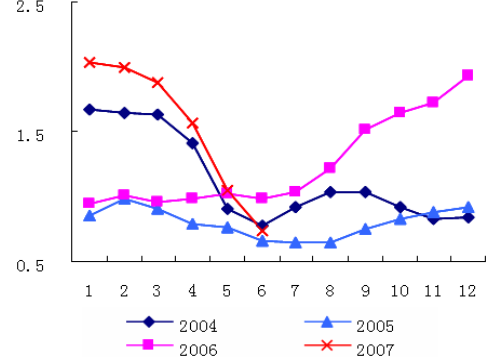
2004-07년 두각 도매가격



2004-07년 피망 도매가격



2004-07년 양파 도매가격



참고자료

http://www.agri.gov.cn/xxfb/t20070803_864792.htm(2007年上半年蔬菜市場形勢分析) 완역

중국, 운남성 화훼산업 개황

김 윤 식*

과거 중국의 화훼산업은 광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운남성과 복건성이 새로운 화훼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운남성은 화훼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적인 측면에서 화훼재배에 유리하여 화훼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운남성에서는 우리나라의 심비디움 재배 농가도 다수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1. 운남성(云南省) 화훼산업의 생산 현황

과거 중국 화훼산업의 중심지는 광둥성(廣東省)이었으나, 최근에는 절화를 중심으로 운남성(云南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운남성의 화훼산업의 역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길지 않다. 과거 운남성의 주요 농산물은 담배 및 껌련이었다. 운남성의 담배 및 껌련 생산량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26%로 차지하여 중국내 최대 생산지였다. 하지만 담배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화훼산업이 빠르게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과 1996년 사이에 운남성의 담배산업계는 화훼산업에 1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다. 운남성(云南省) 정부도 1995년부터 적극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unshik@krei.re.kr 02-3299-4383.

운남성의 화훼산업이 발달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기후를 들 수 있다. 운남성의 날씨는 아열대이지만 고도가 높아 1년 내내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과 같이 온화하다. 연평균기온 15℃로 겨울인 1월의 평균기온이 9.2℃이고 여름인 7월의 평균기온이 19.9℃ 정도이다. 따라서 꽃 재배에 최적의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운남성에 화훼산업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한 농민이 상하이에 갔다가 화훼산업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처음 운남성에 도입하였다. 이후 조금씩 화훼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성장하였다. 1991년 16ha였던 재배면적이 1999년에 1,729ha, 2004년에는 10,600ha, 2006년에는 2만 ha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운남성 중에서는 곤명시(昆明市)의 재배면적이 가장 많다. 농가수도 21,400호(2004년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관련 기업도 39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생산량도 1994년에 2억 1천만 송이에서 1999년에 11억 2백만 송이, 2002년에 23억 송이, 2006년에 42억 송이로 증가하였다. 생산액 규모도 1999년에 4억 7천만 위안에서 2002년 34억 위안, 2006년에 72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화훼 수출액은 6500만 달러로 2005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다. 운남성의 화훼산업은 절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운남성의 절화 시장 규모는 중국 전체의 50%에 해당되는 4억 1,500만 달러에 달한다.

운남성에서 생산되는 화훼 중에서 90% 이상은 절화 형태로 유통된다. 화훼류 중에서 카네이션이 전체 생산량의 35%, 장미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숙근 안개초, 백합, 도라지꽃 등도 생산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절화 중에서는 장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양란 중에서는 호접란과 심비디움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운남성의 화훼산업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품종은 수입산이다. 백합의 경우, 연간 필요한 백합 종구는 4,000만 구 정도인데, 이 중 2분의 1은 수입되고 나머지는 운남성 자체 생산으로 공급한다. 운남성 농업과학원 산하 원예연구소도 백합의 종

구를 일부 공급하는데 연간 백합 종구의 공급량은 약 300만 구 정도로 전체 종구 수요량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윈예연구소가 공급하는 백합 종구의 가격은 수입가격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 수준으로 2007년의 경우 수입 백합 종구의 가격은 3元 정도였던 반면, 윈예연구소가 공급하는 가격은 2.3-2.5元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운남성에서 생산되는 화훼는 대부분 두남(斗南)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부가 인근에 있는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두남시장은 중국 최대의 꽃 도매시장이다. 두남시장에는 약 327개의 등록회사가 있고, 하루 300만 송이 정도가 거래되지만 피크시즌에는 400만 송이 이상이 거래되기도 한다. 거래되는 절화류는 장미, 카네이션, 백합, 거베라, 안개꽃 등이지만 장미의 비중이 80-85% 수준으로 가장 높다.

운남성은 화훼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03년에 두남시장 옆에 1억 2,500만 위안을 투자, 쿤밍국제화훼경매시장(KIFA: Kunming International Flora Auction Trading Co.)을 설립하였다. 운남성 정부, 곤명시, 상해의 회사 등이 공동 투자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며, 운영권은 상해의 회사가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화훼경매시장인 네덜란드 알스미어 경매시장(VBA: Aalsmeer Flower Auction)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문을 받았다.

KIFA가 처리하는 물량은 두남시장 거래량의 10-15% 정도로 아직까지는 경매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KIFA는 장미에 특화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현재 두남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미의 50-60%는 KIFA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KIFA를 통해 거래되는 물량이 40-50만 송이 정도 되는데, 거래되는 물량의 80% 정도는 중국 내수용으로 판매되고 약 20% 정도가 수출된다.

가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3월-추석까지는 낮은 편이고 추석 이후부터 3월 전까지 가격이 높은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가격 추세는 2002년 이후 상승 추세이다. 예를 들어, 2006년 장미 한 송이에 0.2元했지만 올해는

0.4元에 팔리고 있다.

과거 운남성의 담배 재배 농가들은 1무당 1,000위안, 채소 재배농가들이 1무당 4,000위안의 수입을 올렸었던 데 반해, 화훼농가는 1무당 15,000위안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1무당 30,000위안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농가도 있다. 이러한 고소득에 힘입어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많은 농가들이 화훼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2. 운남성(雲南省) 화훼산업의 수출 현황

중국 내에서 화훼류 수출이 많은 지역은 과거 광둥성과 복건성이었으나, 최근에는 운남성과 절강성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광둥성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6년의 화훼류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 운남성과 복건성은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복건성은 광둥성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운남성은 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꽃 재배에 적합한 기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 중국 화훼의 주요 수출 국가, 2005~06년

단위: 만 달러, %

국가별(지역별)	2005년	2006년	증감률
수출총액	7318.7	10,003.9	36.7
일본	2,011.4	3,383.1	68.2
네덜란드	1,522.5	1,797.8	18.1
미국	859.7	964.2	12.2
한국	750.7	937.3	24.9
홍콩	677.7	827.8	22.1
싱가포르	185.3	280.0	51.1
태국	78.8	163.6	107.5
이탈리아	169.0	138.9	-17.8
말레이시아	92.6	136.7	47.7
호주	76.5	134.5	75.7

자료: 中國商務部. 2006.12.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花卉)」. 中國商務部對外貿易司.

표 2 중국의 주요 성(省)별 수출 현황, 2005~06년

단위: 만 달러, %

지역	2005년	2006년	증감률
상해시	640.0	873.7	36.5
절강성	628.8	1,716.2	172.9
북경성	1,073.3	1,370.9	27.7
광둥성	2,609.3	2,381.6	-8.7
운남성	711.3	1,353.0	90.2

자료: 中國商務部, 2006.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花卉)」. 中國商務部對外貿易司.

운남성의 4대 화훼류 수출 품목은 절화, 절지와 절엽, 꺾꽂이와 종묘, 종구 등으로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이들 품목의 수출액이 각각 83.8%, 33.6%, 161.9%, 13.9%로 증가하였다. 전체 생산량의 80% 정도는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10-15% 정도만이 일본, 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한국 등으로 수출된다. 이 중 절화의 수출액은 전체 화훼류 수출액의 86.4%를 차지한다. 주로 홍콩,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에 수출되며 2006년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336만 달러, 298만 달러, 192만 달러, 137만 달러였다. 이들 4개국으로 수출되는 절화류는 운남성 전체의 절화 수출의 79.1%를 차지한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5월에 카네이션을 중심으로 소량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운남성의 절화 품질은 국제시장의 고급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운송은 주로 항공을 이용하며, 홍콩으로의 수출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트럭 운송을 활용한다.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수출용 종이 상자가 있어 이 상자를 이용한다. 수출시 운송비용은 장미의 경우는 주당 30센트(280-300원) 수준이고, 국화는 일본으로 수출 시 항공비용이 kg당 10위안 (1,200원) 정도이다. 생산지부터 공항까지의 운송비용은 주당 0.1-0.2위안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3. 운남성에서 화훼산업이 발달한 원인

운남성 화훼산업의 경쟁력은 연중 재배가 가능한 온화한 날씨, 저가의 지가 및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한 가격경쟁력에 있다. 운남성은 연중 기후가 온난하여 화훼 재배의 최적지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임대료와 임금이 연안지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의 농업노동력이 도시지역으로 이탈하여 농촌지역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운남성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임금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둘째는 성(省)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또한 운남성의 화훼산업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과거 운남성의 주요 산업은 담배산업이었다. 연간 80만톤의 담배가 생산되었고, 궤련은 3,800억 개피 이상이 생산되었다. 230만 이상의 농가들이 담배산업에 종사하였고 성(省) 정부의 조세 수입의 70% 이상이 담배산업으로부터의 수입이었다. 또한 지역의 경제도 담배산업에 근거하여 과거 20년간 연 10%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담배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운남성 정부는 운남성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6년에 100억 위안(12억 1천만 달러) 투자 계획을 세웠다. 절화는 18개의 전략상품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1999년에는 세계 꽃 박람회를 곤명에서 개최하여 화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 운남성 정부는 ‘화훼산업을 수출형산업으로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화훼류 수출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셋째는 외부의 지원 덕분에 운남성의 화훼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운남성은 개도국 낙후지역의 경제개발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교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ITC는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었다. 또한 스위스 정부와 네덜란드 알스미어 경매시장을 연결하여 운남성이 스위스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도와주었고, 알스미어 경매시장으로부터는 경매제도 도입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4. 운남성의 심비디움 시장 현황

최근 운남성에서 절화 외에도 심비디움(Cymbidium)과 호접란(胡蝶蘭) 등의 서양

란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심비디움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운남성의 곤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가도 심비디움 재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 전체 심비디움 생산량의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계 심비디움 농장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곳에 진출하였다.

심비디움은 주로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전체 소비량의 80% 정도가 춘절에 소비된다. 연간 중국에서 소비되는 심비디움의 양은 약 100만 분 정도인데, 이중 약 60만 분은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물량은 한국에서 주로 수입된다.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60만 분의 대부분은 운남성에서 재배된다. 운남성에 생산되는 심비디움의 상당량은 한국계 농장에서 출하된다.

현재 운남성에서 심비디움을 재배하는 한국계 농장은 아홉 곳이다. 생산규모가 비교적 큰 곳은 금호화훼, 화중원예, 세미화훼, 소심난원, 창수난원, 금난원 등이다. 이 중 일부는 조직배양실을 갖춘 곳도 있다. 최근 대만과 중국의 농가들이 심비디움 재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배기술의 차이 때문에 한국계 농장에서 생산된 심비디움보다 저가에 팔리고 있다. 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한국계 농장들의 기술을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운남성 화훼산업의 문제점

운남성의 화훼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중국 농가들이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채 꽃 재배를 하고 있다. 현재 운남성에 재배되는 절화류의 대부분은 네델란드 등의 다른 국가에서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등록된 품종들이다. 따라서 이들 품종을 재배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지만 중국의 농가들은 이들 품종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때문에 최근에 개발된 가시 없는 장미 품종의 중국으로의 이전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둘째,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운남성의 철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생산된 꽃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품질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품질 품종은 로열티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품종 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셋째, 운남성은 중국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경쟁 지역인 절강성이나 복건성 및 광둥성에 비해 운송이 불편하다. 중국 최대의 화훼 소비지인 광둥성까지 트럭을 이용하여 육상 운송을 해야 하고, 외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나 항공편수이나 시설면에서 쿤밍 공항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쿤밍 외곽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 중이다.

넷째,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운남성의 화훼산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쟁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운영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교역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WTO 등에 제소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운남성에서는 철화 수출에 이용되는 냉장차가 무료로 제공되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데, 이는 WTO 규정에서 감축대상인 수출보조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현지출장 수집자료(2007년 6월 19~22일)

EU, 우유 및 유가공산업 및 관련정책 개요

김 정 섭*

EU의 낙농 관련 정책은 1984년의 우유 쿼터제 도입과 2003년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계기로 크게 변화했다. 그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U의 우유 및 유가공 산업과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1. EU의 낙농 부문 현황

1.1. EU 낙농업의 구조

낙농 부문의 구조는 EU 회원국들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농장 규모나 초지 면적은 회원국마다 크게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2004년 5월 EU 확장 이후로 더욱 현저해졌다. 그러나 EU 전역에 걸쳐 낙농부문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나 기타 기술적 요인들에서 나타나던 국가 간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뒤져 있던 낙농 생산자들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 프리지안-홀스타인(Friesian-Holstein) 종이 유럽 전역에서 가장 흔한 축종이지만 유럽의 ‘전형적인’ 젖소 축종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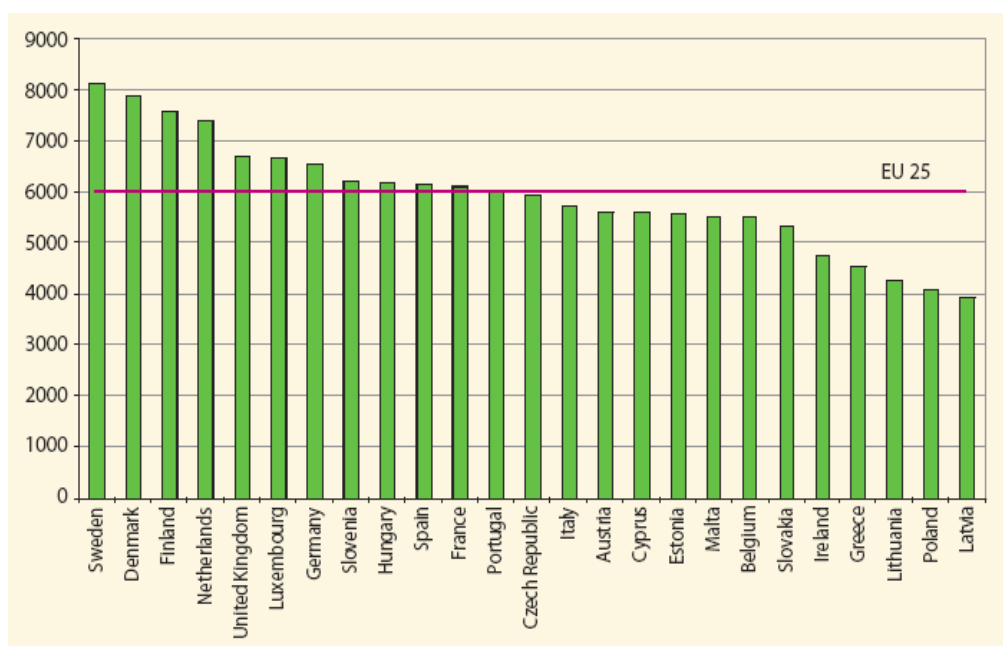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낙농가들은 원유를 유가공업체에 판매한다. 소비자들에게 생유를 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접 판매하는 낙농가들도 있다. 목장 직판을 통해 우유가 소비되기도 한다. 특히, 동부유럽의 신규 회원국들에서는 목장 직판을 통해 판매되는 우유의 양이 상당하다.

그림 1 EU 회원국별 우유 생산성

단위: 1000kg/두/년



자료: EU 집행위원회

농업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유 가공 또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회원국들에서는 사기업이 우유 가공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국가 수준에서의 우유시장이라는 개념은 옛말이 되었다. 이제는 목장이나 가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경을 넘나들며 바뀌는 경우가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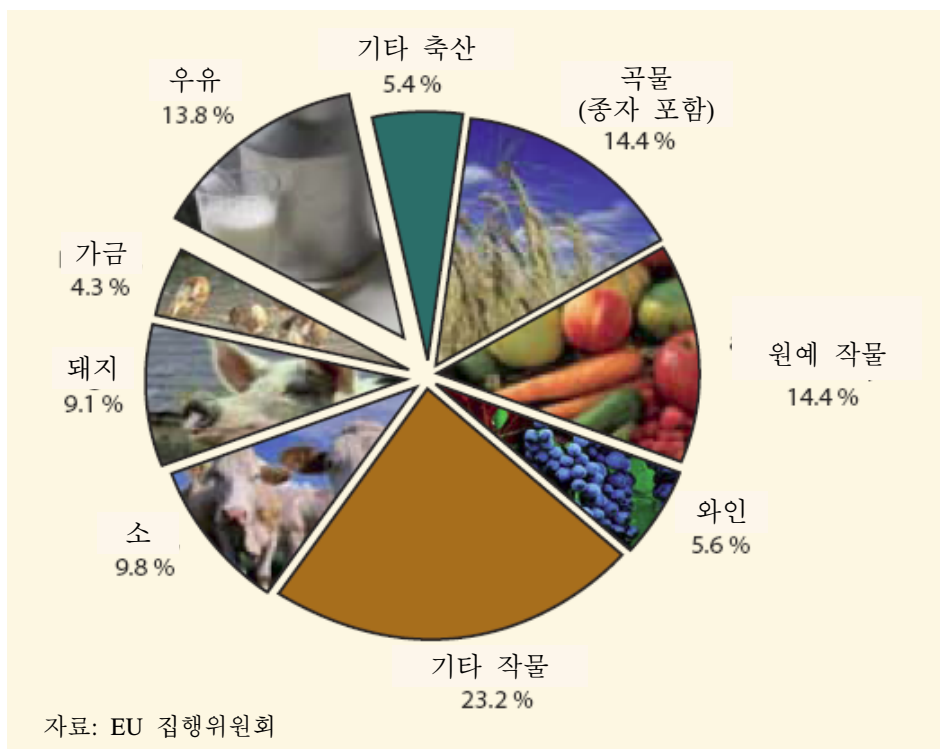
EU의 모든 회원국들에서 우유가 생산되며, 우유는 EU의 농업생산액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어떤 회원국에서는 우유가 농업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국가 농업총생산액 중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작게는 5.8%에서부터 가장 크게는 33.5%에 이르기까지, 나라마다 다르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에서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그 비율이 10% 미만이다.

1.2. 우유 공급 실태

1984년에 도입한 우유 쿼터제는 EU 낙농가들의 연간 우유 생산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낙농가의 경영 관련 의사결정, 기후적 요인, 기타 요인 등이 최종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EU의 우유 총생산량은 당해의 쿼터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 EU 농업생산액의 품목별 구성비,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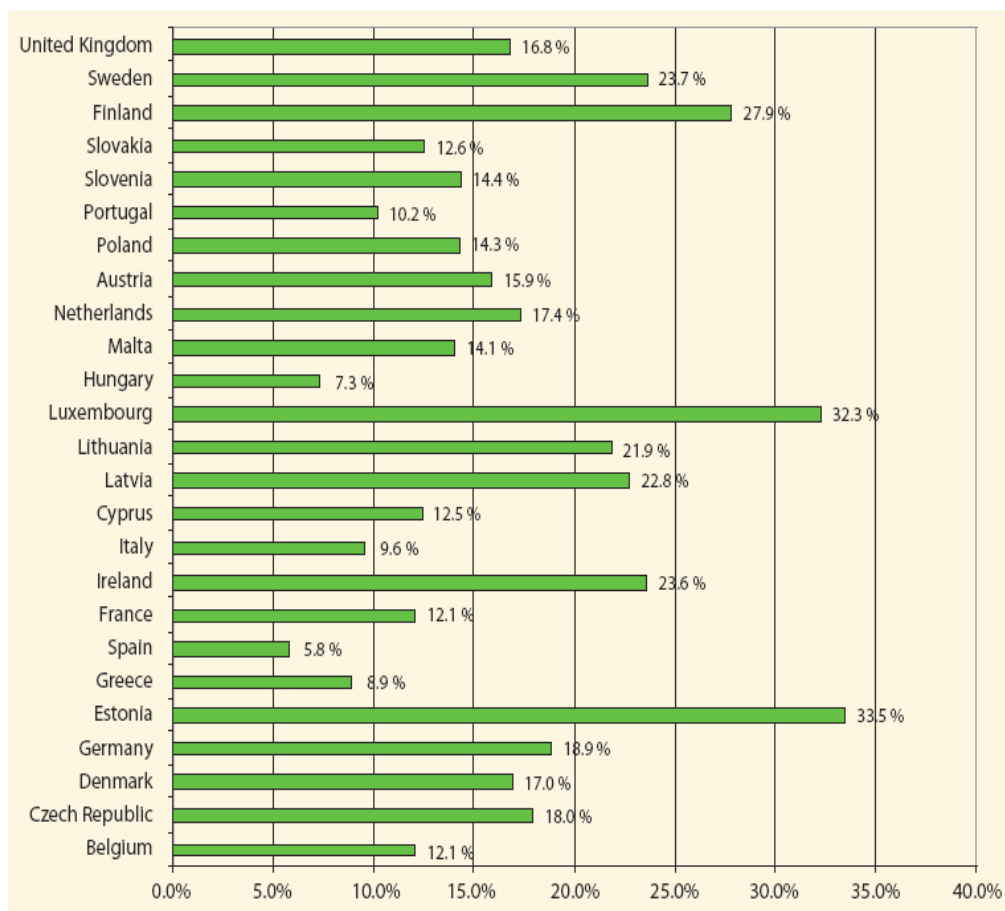


쿼터제 하에서는, 한 농가가 자신의 쿼터 이상으로 우유를 생산하면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초과세(superlevy)’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 초과세의 세율은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낙농가들이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매년 쿼터 한도를 정확하게 맞추어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쿼터는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물량과 농장에서 직판하는 물량 각각을 분리하여 정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우유 생산량이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젖소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규 회원국들에서는 농가에서 소비되거나 직판되는 우유의 물량 중 상당부분이 가공시설에 공급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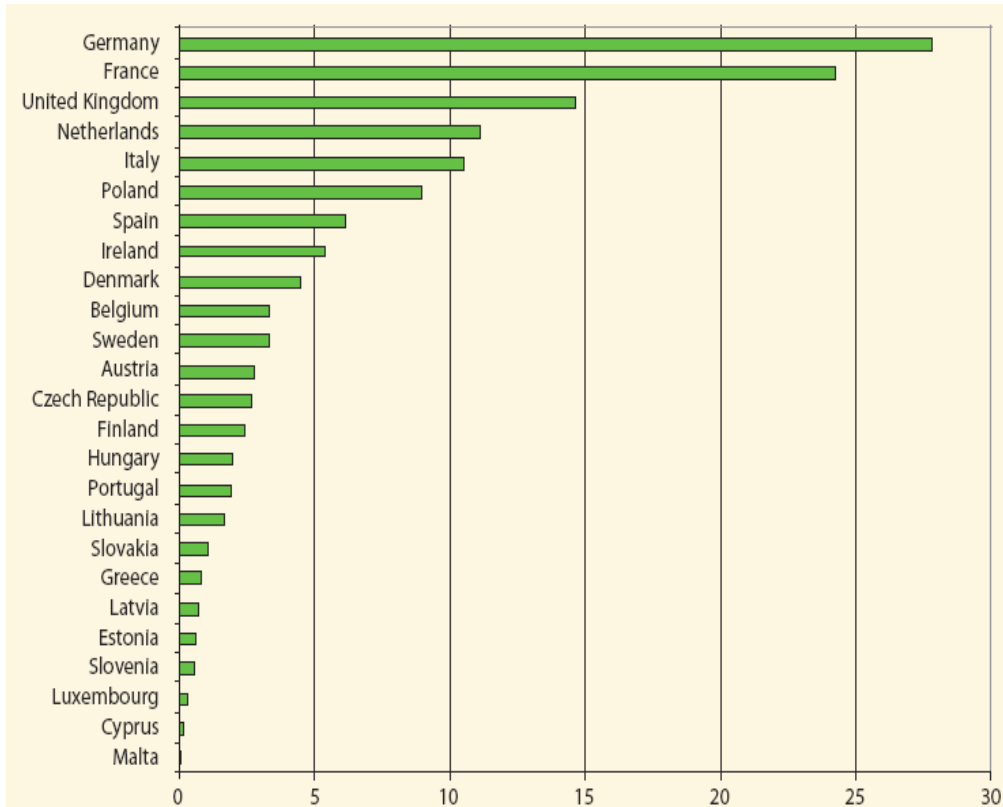
그림 3 EU 회원국별 농업총생산액 중 우유의 비중, 2004년



자료: EU 집행위원회

그림 4 EU-25개국별 우유 생산 킬터, 2005년

단위: 100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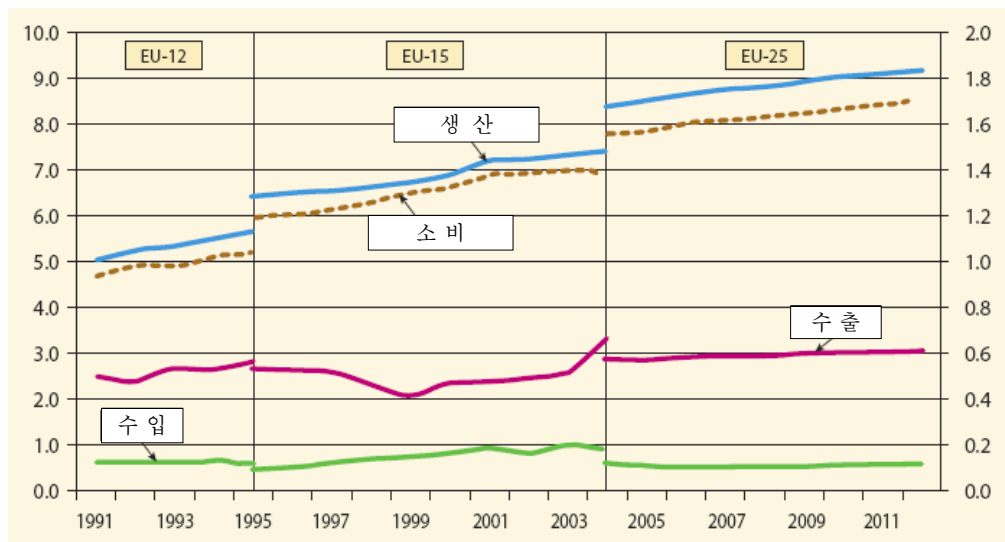
* EU 전체의 우유 생산 킬터: 약 1억 3734만 톤

1.3. 우유 및 유제품 소비 실태

어떤 유제품의 경우 그 소비량의 변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EU에서 버터 소비량은 느린 속도지만 꾸준하게 여러 해 동안 감소했다. 한편, 치즈 소비는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치즈 생산량은 거의 15%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치즈 소비량은 연평균 1.5% 증가했다. EU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40%가 치즈로 가공되고 소비된다. 네 개의 회원국들(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이 EU에서 생산되는 치즈의 75% 이상을 생산한다. 분유 소비량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유제품 시장(예: 크림, 식품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유단백질 등)은 성장하고 있다.

그림 5 EU의 치즈 시장 전망, 1991~2013년

단위: 100만 톤



자료: EU 집행위원회

1.4. 우유 가격

EU에서 우유의 생산자가격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 EU 역내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 세계시장에서의 유제품 가격
- 환율 변동
- 특정 상품에 대한 품질 요구와 수요
- 식품공급사슬 내에서의 경쟁 상황
- 낙농 시장과 낙농가들에 대한 CAP의 지원

1960년대 후반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된 이후, CAP은 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련의 CAP 개혁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시장의 힘이 주된 가격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우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EU에서의 우유가격이 세계 시장에서의 그것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1.5. EU의 유가공 산업

유럽에서는 매년 1억 3,500만 톤 정도의 원유가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된다. 식품으로 가공되기도 하며, 여러 종류의 사료나 의약품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160만 낙농가들이 유가공업체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농촌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다. 유가공 산업 전체의 매출 규모는 유럽의 식음료 산업 매출 규모의 약 15%에 달한다. 식음료 산업 고용 중 13% 정도가 유가공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2. CAP과 낙농부문

우유 및 유제품에 관한 공동시장조직은 1968년에 형성되었다. 당시 CAP은 과잉생산시 저장(공공비축) 및 시장물량 회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2003년의 CAP 개혁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왔다. EU의 낙농 정책을 ‘역내 시장개입 정책’, ‘무역 관련 정책’, ‘낙농가 직접지불 정책’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1. 역내 시장개입 정책

우유와 유가공 제품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EU 낙농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낙농정책의 주된 목표였다.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는 2003년 CAP 개혁 조치 때까지 유지되었다. 다른 농업부문과 마찬가지로 낙농부문에서도 시장개입 정책은 앞으로는 제한될 것이다.

현재 공공비축을 통한 시장가격 지지 수단은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공공비축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는 매년 3월 1일에서부터 8월 31일 사이에만 버터 형태로 되어 있는 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이 공공비축 계획 물량을 초과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공개입찰을 통해 버터를 더 매입할 수 있다. 그 상한선은 2006년에 5만 톤이었고, 2007년에는 4만 톤이었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3만 톤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시장지지 가격을 매 분기마다

25% 낮추어, 2007년 6월 말에는 246.39€/kg이 되었다.

이처럼 가격지지를 위한 정책개입을 줄여왔지만, EU 역내 시장에서 유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함에 있어 과잉생산물 처분을 위한 EU 차원의 보조금 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비영리단체, 제과업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에 대한 크림과 버터공급
- 동물사료용 탈지 분유 공급
- 카제인 제조용 탈지 분유 공급
-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
- 최하위 빈곤계층에 대한 유제품 지원

한편, 버터와 몇몇 특정 종류의 치즈(주로 이탈리아산 치즈)의 경우, 생산자들이 저장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유 공급의 계절적 수급 변동이 크기 때문에, 몇몇 제품의 생산량은 단기간 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러한 제품의 저장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1984년에 우유 쿼터제를 도입한 이후로 EU의 낙농부문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우유 쿼터제 실시 기간을 2015년 3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2006년부터 EU-15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매년 0.5%씩 쿼터량을 증가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다만, 그리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쿼터제 실시 초기에 쿼터량을 증가시키는 혜택을 받은 바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2. 무역 관련 정책

EU 역내 시장에서의 유제품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더 높기 때문에, 수출보조금 지원을 받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결과에 따라, 수출보조금은 그 이후로 수출 물량과 보조금 총량의 두 측면에서 계속 제한되었다. 이처럼 수출보조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사실상 보조금 상한선에 이를 정도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치즈뿐이다. 여타의 유제품 수출은 보조금 허용치보다 한참 아래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 보조금 지원 가능 유제품 수출 최대 허용 물량 및 금액(EU-25개국)

품목	물량(톤)	금액(1,000€)
버터 / 버터롤	399,300	947,800
탈지분유	272,500	275,800
치즈	321,300	341,700
기타 유가공 제품	958,100	697,700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에 벌크 형태로 수출되는 버터, 버터 오일, 탈지분유 상품의 수출환급금과 관련하여 입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고정 환급금 시스템과 병행하여 운용되고 있다.

EU는 수입 유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EU 역내 시장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EU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여러 국가들은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저율관세 수입물량 제도가 모든 유제품에서 완전히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분유의 경우 약 7만 톤의 저율관세수입물량이 확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몇 가지 종류의 치즈 상품에 대해서는 약 12만 2,000톤의 저율관세수입물량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40% 정도만의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 버터의 경우, 저율관세수입물량은 8만 9,000톤인데 할당된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 채워지고 있다.

2.3. 낙농가 직접지불정책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개입정책의 후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간 낙농가들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낙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EU의 모든 우유 생산자들에게 제공되는 ‘낙농 프리미엄 직접지불(direct dairy premium)’이며, 다른 하나는 회원국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기준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직접지불이다. 낙농가가 매년 받을 수 있는 낙농 프리미엄 직접지불 금액의 총량은 전년도 우유 생산 쿼터를 근거로 결정된다. 최근 3년 간 직접지불금의 단가는 다음과 같았다.

- 2004년, 쿼터 1톤당 8.15€
- 2005년, 쿼터 1톤당 16.31€

○ 2006년, 키토 1톤당 24.49€

2003년의 CAP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단일직접지불제(Single Payment Scheme)’를 도입한 것이다. 이로써 낙농가들은 환경, 보건, 복지 등과 관련된 이행조건(Cross Compliance) 규정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단일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U 회원국들은 2005년, 2006년, 2007년 중 적절한 시기에 단일직접지불제를 도입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다. 낙농가들에게 단일직접지불제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회원국마다 다르게 결정되어 있는 ‘국가별 할당치’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농업부문 전체의 단일직접지불금 할당치 총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된다.

3. 향후 전망

EU의 낙농 관련 정책은 지난 40년 동안 크게 변화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84년에 우유 키토제를 도입한 것과 2003년의 CAP 개혁 조치였다. 현재 EU의 낙농 부문은 보다 시장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가격 지지와 시장개입 정책은 후퇴했고, 수출보조금도 감축되고 있다.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들은 보다 시장지향적인 상황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향후 2~3년 동안은 키토를 늘리기 위한 일정이 검토될 것이다. 장래에는 지금보다도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낙농부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제품 시장의 균형을 유지함에 있어 특별히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는, ‘유지방을 원료로 하는 상품과 유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상품의 시장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유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상품은 EU 안에서 비교적 잘 소비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수출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에 유지방을 원료로 하는 상품의 경우 시장에서의 잉여가 문제되고 있다.

EU의 낙농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WTO 무역 협상
- EU의 확장
- CAP 예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
- CAP 단순화 요구

참고자료

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fact/milk/2007_en.pdf (EU 집행위원회) 발췌정리

EU, 비승인 GMO의 가축생산 등에 대한 영향분석

유 찬 희*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s)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 7월 EU에서는 현행 규정으로 GM 사료 농산물 수입이 분석될 경우, EU의 축산 부문에 받게 되는 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1. 배경

사료 수출국들은 새로운 유전자변형농산물(GMOs)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 EU의 GMOs 승인을 위한 규제 과정은 수출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예로 EU에서 GMO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5년 이상으로, 의 평균 15개월보다 월등히 길다. 이런 차이로 말미암아 “비동시적인 승인”, 즉 한 나라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GMOs를 식용과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 시점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EU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gency)에서 신종 GMO에 대해 취급 허가를 내더라도, 회원국의 규제위원회와의 불일치로 인해 EU 내에서 사용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자격을 갖춘 EU 차원 기구의 승인을 받은 GMO는 전혀 없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rhew@krei.re.kr 02-3299-4232

그럼에도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관계로 EU가 comitology¹⁾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시장왜곡(옥수수 제품과 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수출국에서도 승인을 받지 않은 GMOs가 우연히 혼입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에서 DAS-59122 품종 옥수수를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수출국에서 승인을 받고 재배되지만 EU에서는 승인받지 않은 GM 옥수수(이하 ‘비승인 GM ~’)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국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승인 GM」 옥수수는 EU의 수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EU 규정은 수출국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비승인 GM」의 혼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GMO 재배가 확대되면 이는 보다 많은 작목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비승인 GM」이 유입될 확률은 새로운 GM의 개발 가능성, 수출국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 그리고 EU에서 승인한 GM과 「비승인 GM」을 생산지역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동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승인을 하는 방식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국가(등,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새로운 GMOs가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조차 예기치 않은 혼입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입 확률은 EU가 어떠한 무역 대응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비승인 GM」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분석 보고서 첨부 및 수출/수입 단계에서의 2단계 검사가 주를 이루어왔다.

1) EU 내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토론·연구하는 working group과 위원회를 일컫는 말로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수행과 입안에 고문 역할을 수행함. 즉, 집행위원회를 보좌하는 책임을 지는 각종 위원회 제도로 공동입법결정과정을 지칭함.

이외에도 증명자료가 없을 경우에 일시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결과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도 무역업자들이 혼입을 우려하여 수출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하기도 한다. 공급이 부족해져서 다른 품목(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더 높은)으로 대체하여 수입해야 하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리고 EU는 GMOs를 재배하는 국가들로부터 많은 양의 사료를 수입하고 있다.

다음 분석은 옥수수과 대두 내 「비승인 GM」 혼입 가능성이 동물사료 수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것이 EU 육류 생산·소비·무역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를 할 것이다. 기준전망은 2007년 1월 발간한 농산물 시장 전망을 이용할 것이다.²⁾

2. 옥수수 사료

2.1. 옥수수

EU-27이 매년 수입하는 옥수수는 250~400만 톤 수준으로, 생산량(5,400~6,200만 톤)의 4~7% 수준이다. 2000년대 초에는 대부분의 수입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부터 이루어졌고, 일부 물량만이 으로부터 수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량이 격감했다. 2006년에 EU가 가장 많은 옥수수를 수입한 국가는 세르비아(120만 톤)였고,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80만 톤), 브라질(50만 톤), 우크라이나(35만 톤) 등이었다. 이는 EU가 잠재적인 GM 옥수수 생산국, 즉 아르헨티나, 브라질, 으로부터 전체 수입량의 45%(130만 톤)를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in the European Union 2006-2013, January 2007,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표 1 EU-27의 옥수수 수입량

단위: 천 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량	2,435	2,868	3,257	2,333	4,055	4,238	2,571	2,957
아르헨티나	2,032	2,494	1,410	1,495	2,056	1,657	1,524	821
브 라 질	0	0	1,324	440	1,379	1,877	117	484
	185	271	113	81	99	105	31	25
기 타	218	103	409	316	520	599	899	1,626

주: 2006년 수입량은 추정치

2.2. 옥수수 클루텐 사료(Corn Gluten Feed, CGF)

EU-27이 수입하는 CGF 양은 2000년 약 500만 톤에 이르렀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6년 약 250만 톤(생산량의 5% 미만)까지 줄어들었다. CGF는 거의 전량 에서 수입하고 있다.

표 2 EU-27의 CGF 수입량

단위: 천 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량	4,642	4,821	4,159	4,136	3,560	3,297	2,630	2,520
	4,583	4,767	4,054	4,108	3,531	3,268	2,591	2,490
기 타	59	54	105	27	30	28	39	30

주: 2006년 수입량은 추정치

2.3. 주정박(Distillers Dried Grain, DDG)

은 에탄올 산업 붐에 힘 입어 주정박 생산을 크게 늘려 2005년 생산량이 810만 톤에 이르렀다(2003년 510만 톤, 2004년 650만 톤). 반면 EU의 주정박 수입은 역대 최고였던 1996년 190만 톤에서 2006년 62만 5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표 3 EU-27의 주정박 수입량

단위: 천 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량	669	713	684	825	773	669	756	624
	631	665	660	766	734	750	740	608
기 타	38	48	24	58	39	19	16	17

주: 2006년 수입량은 추정치

2.4. 소결

「비승인 GM」 혼입 가능성이 있는 수입 옥수수는 EU-27에서 생산하는 옥수수, 다른 국내 생산 곡물로 대체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옥수수 글루텐 사료나 주정박 역시 다른 비곡물 사료나 부산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옥수수, 옥수수 글루텐 사료, 주정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비승인 GM」 옥수수 혼입 가능성이 EU의 사료 수입과 가축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정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는 수입의 영향이 클 수 있다. 주정박은 일부 바다와 접한 회원국(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다. 주정박을 다른 사료로 대체하려면 수송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옥수수를 헝가리에서 스페인으로 수송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톤당 60유로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3. 대두

3.1. 대두 및 부산물 교역 현황

EU-27의 대두 및 부산물 수입량은 1990년대 후반부터 완만하게 증가해 왔고, 최근에는 3,400~3,500만 톤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EU의 자체 생산량 1,200만 톤보다 월등히 많은 양이다. 최대 수입국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다. 한편 이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파라과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3.2 대두 및 부산물의 잠재적 대체

대두 및 부산물의 수입량은 EU 역내 생산량보다 월등히 많고 가축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단백질 함유량이 풍부한 이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EU 차원에서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면서 지방종자의 식부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콩과 식물의 생산량 역시 늘어나고 있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생산면적이 다시 감

소하고 있고,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 수준 역시 충분하지 않다. 설혹 보조금 수준을 높여 식부면적을 증가시켜도 EU 수요량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합해 보면 EU가 대체할 수 있는 지방 종자 및 단백질 종자식물(protein seed)의 양은 수입량의 10~20% 정도일 것이다.

표 4 EU-27의 대두 및 부산물 수입량

단위: 백만 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량	28.5	27.5	33.2	34.6	34.9	32.7	33.7	34.0
아르헨티나	9.0	8.2	8.9	11.0	11.1	11.1	12.0	14.4
브 라 질	12.2	12.7	17.2	16.8	17.7	17.2	17.4	15.4
	5.7	5.7	6.0	6.0	4.7	2.8	2.6	2.5
파 라 과 이	0.6	0.3	0.6	0.2	0.8	0.8	0.8	0.9
기 타	0.6	0.6	0.6	0.6	0.7	0.8	0.9	0.8

주: 2006년 수입량은 추정치

3.3 「비승인 GM」 혼입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 평가

「비승인 GM」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경제적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수출국에서 재배할 확률이 높은 첫 번째 「비승인 GM」 콩은 'MON 87988'이다. 이 품종은 2005년 콩 재배면적의 87%, 그리고 전 세계 콩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한 'Roundup Ready 40-3-2'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6년 상반기에는 'Roundup Ready 2'에 대한 승인 요청이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농무부에 제출되었으며, 몇 달 내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미국에서는 2008년 또는 2009년에 재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2006년 11월 EU식품안전청은 'MON 87988'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았다. 해당 요청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MON 87988'의 재배가 2008년 이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승인 GM」 혼입 가능성 문제는 2009~2010년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기간 이후 승인이 이루어지면 수입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분석을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1) 시나리오 1: 영향 최소

- 미국 콩 수입이 다른 국가 수입분으로 대체: 미국으로부터의 콩 수입은 2005년 기준 260만 톤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대체 가능하다고 가정
- 미국이 새로운 GM 콩을 승인하여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미국 물량은 다른 곳으로 수출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산이 대체
- 이 경우 EU의 콩 및 부산물 공급에 미치는 순효과는 낮으므로, 구체적인 모형 분석을 하지 않았다.

(2) 시나리오 2: 영향 중간

- 미국과 아르헨티나 수입분에 의해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부분적으로 브라질 수입량 증가로 상쇄(브라질은 추가적으로 7백만 톤을 수출 가능)
- 이 경우 부산물 990만 톤에 해당하는 수입 부족분이 발생(아르헨티나 1,440만 톤 감소, 미국 250만 톤 감소, 브라질 700만 톤 증가)
- 다른 요인과 가정을 종합할 때 부산물 330만 톤 수준의 순 부족분 발생

(3) 시나리오 3: 영향 최대³⁾

-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산 콩 및 부산물에 「비승인 GM」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가정
- 이 경우 부산물 3,230만 톤에 해당하는 수입 부족분이 발생(아르헨티나 1,440만 톤 감소, 미국 250만 톤 감소, 브라질 1,540만 톤 감소)
- 다른 요인과 가정을 종합할 때 부산물 2,570만 톤 수준의 순 부족분 발생

3.3.1. 지방종자 부산물에 미치는 단기 영향

시나리오 2, 3의 경우 모두 콩 및 부산물 사료 수입이 제한되면서 EU 내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나리오 2에서는 2009~2010년까지 가격이 60% 상승 전망). 동시에 EU가 「비승인 GM」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수용가 감소하여 세계 시

3) 이 시나리오에서는 추정된 영향 추정치는 기술적인 한계 이상임. 따라서 가격 변동의 방향과 정도는 신뢰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주의해서 살펴 필요가 있음.

장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제한되면서 소비 수준 역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시나리오 2: 6%, 시나리오 3: 50%).

부산물 가격이 오르고 곡물 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준전망에 비해 총 사료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시나리오 2: 23%, 시나리오 3: 600% 이상)

3.3.2. 돼지고기 부문에 미치는 단기 영향

시나리오 2에서는 EU 돼지고기 부문이 받는 영향(생산 및 소비 감소)이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기준전망보다 늘어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2009년 81,000톤, 2010년 96,000톤)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9년에는 거의 변동이 없고, 2010년에는 약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돼지고기 가격은 기준전망과 비교해서 약 1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에서 돼지고기 생산량은 기준전망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2009년 29%, 2010년 35%)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곡물 수입이 줄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이는 수입 증가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럴 경우 EU는 돼지고기 순수입국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EU의 돼지고기 소비 수준은 2009년에는 기준전망 대비 24%나 감소하고, 2010년에는 수입 증가로 기준전망 대비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 가금육 부문에 미치는 단기 영향

돼지고기 부문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2에서는 EU 가금육 부문이 받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기준전망 대비 2% 감소). 기준전망과 비교할 때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가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생산량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소비 수준이 약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에서 가금육 생산량은 기준전망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2009년 29%, 2010년 44%)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수출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무역 수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EU의 역내 소비수준은 기준전망과 비교하여 16%(2009년), 26%(2010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3.3.4. 쇠고기 부문에 미치는 단기 영향

쇠고기는 사료 구조 상 돼지고기나 가금육에 비해 영향을 덜 받지만, 수입·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2에서 쇠고기 수입은 약 13% 증가하고 수출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돼지고기와 가금육 가격이 상승하면서 쇠고기 소비량은 기준전망 대비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에서 수입량은 기준전망과 비교해 네 배 이상 증가하고, 수출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쇠고기 소비량은 돼지고기와 가금육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준전망보다 훨씬 증가하여 쇠고기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3.3.5. 육류 부문에 미치는 단기 영향

2011년 「비승인 GM」 지방종자와 부산물에 대한 수급 조치가 끝날 경우,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의 수급은 점차 회복될 것이다. 시나리오 2 하에서 2013년까지 육류 공급·소비가 기준전망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나리오 3 하에서는 2009~2010년 수입 제한의 영향이 여전히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돼지고기(기준전망 대비 -13%)와 가금육(기준전망 대비 -17%)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쇠고기 생산량은 증가(기준전망 대비 15%)하여 다른 고기 생산량 감소를 보충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두 시나리오의 경우 모두 수입은 기준전망보다 증가, 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쇠고기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입 감소와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인이다(시나리오 별로 규모 차이).

시나리오 2에서 EU의 육류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시나리오 3에서는 이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료 수요 감소에 따라 사육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3.4.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

세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은 주요 수출국들이 GMOs 승인과 생산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유럽 시장을 얼마나 고려할지에 달려 있다.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미국(콩 및 부산물 수출 비중 9%)의 경우는 상당히 명백하다. 이전부터 미국은 EU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GMOs를 승인하고 재배해 왔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EU가 승인하기 전에 새로운 GMOs를 재배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EU-27은 아르헨티나 대두 및 부산물의 42%를 수입하는 중요 시장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대두 가공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GMOs를 개발했을 경우 이 품종의 수출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GMOs 승인의 공식적인 한 부분이다. 브라질의 대두 산업은 아르헨티나보다도 더 EU에 의존하고 있다(수출물량의 51%). 따라서 브라질은 새로운 GMOs 승인에 있어 극히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대두 종자가 「비승인 GM」 성분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주요 대두 수입국으로 부상하면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향후 유럽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각화를 꾀할 수 있다.

4. 결론

앞으로 「비승인 GM」은 사료 수입 금지 여부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수출국이 수출전략 수립 과정에서 EU의 방침을 고려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혼입 등으로 당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EU는 수입 경로를 다각화·유연화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GMOs 승인 시점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EU 축산 및 농업 부문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와 주요 수출국의 GMOs 승인 절차에 필요한 기간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에 도해 수입 사료 등이 극미량의 GMOs 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모형 분석 결과(기준전망치와의 차이)

단위: %

품목	구분	시나리오 2(영향 중간)		시나리오 3(영향 최대)	
		2009	2010	2009	2010
지 방 종 자 류	생 산 량	-5.0	-4.9	-18.0	17.6
	수 입 량	-7.5	-7.3	-76.2	-74.1
	수 출 량	0.0	0.0	0.0	0.0
	재 고 량	-12.6	-1.5	-68.5	0.5
	총 소비량	-6.1	-5.6	-48.2	-51.1
	사 료 비	22.8	22.8	2,068.2	682.9
돼지고기	국내 생산량	-0.9	-1.8	-29.3	-34.7
	수 입 량	28.6	74.3	637.0	5,461.0
	수 출 량	-0.3	-1.1	-86.0	-85.3
	소 비 량	-0.9	-1.6	-23.9	-17.4
가 금 육	국내 생산량	-1.7	-2.6	-29.2	-43.9
	수 입 량	6.6	10.6	92.5	158.3
	수 출 량	-2.9	-5.9	-100.0	-100.0
	소 비 량	-1.0	-1.5	-15.7	-26.3
쇠 고 기	국내 생산량	0.0	0.0	-1.1	-2.1
	수 입 량	12.7	14.0	397.4	295.8
	수 출 량	-41.2	-95.1	-100.0	-100.0
	소 비 량	1.2	1.5	30.2	23.1

주: 시나리오 3의 영향 추정치는 기술적인 한계 이상이므로 가격 변동의 방향과 정도는 신뢰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http://ec.europa.eu/agriculture/analysis/markets/index_en.htm, “Economic Impact of Unapproved GMOs on EU Feed Imports and Livestock Production”, 완역

미국, 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김 현 중*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현재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은 하반기부터 가격이 하락세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원유는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전망하였다.

1. 쇠고기

중서부 지역을 제외한 옥수수 작황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며, 목장 역시 대부분의 지역은 경영조건이 양호하나 남서부 및 서부 산악지대, 남동부 지역은 다소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가뭄으로 인해 재배지역의 20%에서 사료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현재 사료작물의 수확이 시작되어 사료를 비축하는 중이다. 2007년 5월 사료 재고량은 2006년의 70%, 2005년의 54% 수준에 불과하여 올해 겨울을 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im1025@krei.re.kr 02-3299-4376

2007년 2분기 암소 및 젖소 도축은 예전 전망치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CWT¹⁾의 원유 감산 및 수출 진흥책으로 젖소 암소 53,000마리가 도축되었으며, 남동부 및 남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암소 및 젖소 도축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암소도축이 현재와 비슷한 추세로 계속될 경우 2008년 암소 사육두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축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암소 가격은 100파운드당 50달러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송아지 도축두수는 2007년 초에 최고점에 도달한 뒤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축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육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작년 겨울 가뭄과 사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린 송아지 도축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2007년 5월 비육우²⁾ 가격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 동월보다 3% 상승하였다. 목장환경의 개선 및 비육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저체중 육우의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2007년 5월 저체중 육우의 가격은 전년 동월에 비해 같거나 약간 하락한 정도이다.

계절적으로 초이스급과 셀렉트급의 가격차가 줄어드는 시기이나, 공급량 감소로 인한 비육우 가격 상승으로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여름, 가을, 겨울부터 사육된 육우 두수 및 1000두 이상 사육농가 수를 감안해볼 때, 향후 몇 달간 출하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육생산량은 가을까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쇠고기 공급량 증가 및 쇠고기 도매가격과 육우 산지가격 하락이 전망된다. 2007년 5월 초이스급 쇠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에 비해 9%, 셀렉트급 가격은 16% 각각 상승하였다. 또한 50%³⁾ 가공 정육 및 90% 가공정육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각각 58%와 15%가 상승하였다.

1) CWT[Cooperatives Working Together] 낙농업 공동사업: 우유 생산업자들이 조직한 협동조합들의 공동사업.

2) 오클라호마산, Medium and Large No1, 750~800 파운드급 거세우

3) 햄버거 패티 등에 이용되는 정육으로 수치는 살코기 함량을 나타냄.

2007년 5월 초이스급 쇠고기의 월 평균 소매가격은 4.30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 상승하였으며, 다른 육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가격상승 요인으로 수출량 증가 및 공급량 감소, 계절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국내 도축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분기 쇠고기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의 판매 호조로 쇠고기 수출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국제 수역사무국(OIE)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위험 통제등급’을 내렸다.

이는 사료 교차급여 금지 및 특정 위험 물질을 처리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수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OIE의 결정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며, 개별 국가가 저마다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 낙농업

사료가격이 높은 수준이지만 유제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젖소 도태율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올해 젖소 사육두수는 2006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평균 젖소 사육두수는 911만 5,000두로 2006년보다 3,000두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두당 산유량은 20,220파운드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목장 상황이 좋아 알팔파 가격이 완만하게 형성되고 사료 급여에도 어려움이 없지만 동남부에는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우유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2007년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약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고, 2008년에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1,884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8년 젖소 사육두수는 912만 5,000두로 올해보다 다소 증가하고, 두당 산유량 또한 올해보다 2.1%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유사비(원유/사료가격 비율)는 2.9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생산자들은 사육 규모를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공용으로 사용된 원유 투입량은 원유 생산량 증가 폭보다 클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유를 포함한 유제품에서의 수요 강세는 낙농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월말 치즈 재고가 지난해 동기보다 늘어났지만 치즈 가격은 미국스타일 치즈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치즈 가격 상승으로 5월 내내 상승하였다. 탈지분유의 높은 가격은 이탈리아 타입 치즈 제조업자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치즈 가격은 파운드당 1.605~1.645달러로 전망되며, 2008년은 올해보다 낮은 1.485~1.585달러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국제 분유제품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미국내 탈지분유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연합의 재고는 적은 상태이고, 치즈 가공으로 원유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호주의 원유 생산량은 가뭄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올해는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탈지분유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1.610~1.650달러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2008년에는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탈지분유 가격은 파운드당 1.560~1.630달러로 전망된다.

미국의 버터 가격은 생산량 증가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평균 버터 가격은 파운드당 1.370~1.440달러로 전망되며, 2008년에는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1.350~1.480달러로 전망된다. 유장 가격 또한 상승하였으며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가격은 파운드당 68.5~70.5센트, 2008년에는 65.0~68.0센트로 전망된다.

버터와 분유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으로 올해 4등급 원유가격이 100파운드당

17.85~18.3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유제품 시장은 여느 때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등급 원유가격이 3등급 원유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원유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3등급 원유가격은 평균 100파운드당 17.30~17.70달러로 전망되며 모든 등급 평균 원유가격은 올해 크게 상승한 18.55~18.95달러로 전망된다.

원유 가격 강세는 2008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등급 가격은 100파운드당 17.25~18.35달러, 3등급 가격은 15.95~16.95달러로 전망되며, 모든 등급 평균 원유 가격은 17.90~18.90달러로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닭고기

올해 4월 도계작업일수가 지난해보다 하루 더 늘어나 2007년 4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월보다 1.6% 증가한 28억 6,000만 파운드였으며, 도계수수는 2006년 4월보다 2.8% 증가하였다. 도계수수와 평균 생체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도체중이 지난해보다 1.2% 감소하였다. 병아리 생산수수 증가로 2분기 도계수수는 지난해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2% 감소한 89억 8,000만파운드로 예상된다.

2007년 하반기 닭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2.3% 증가한 181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올해 3, 4분기 평균 생체중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2일~6월 9일까지 주간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6년 동기간보다 3.5% 증가한 1억 8,000만수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생산량과 재고량 감소로 대부분의 가금육 가격은 강세를 보였다. 5월 닭고기 도매가격(12개 도시 평균)은 2006년 동기보다 36% 상승한 파운드당 81센트이며, 이는 연초보다 11센트 높은 수준이다. 5월 북동부 시장(Northeast market)의 가슴살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1% 상승한 파운드당 1.70달러, 연초

보다 42센트 상승하였다.

2007년 하반기 닭고기 생산량 증가로 육계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2008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유용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과 수출시장의 확대에 달려있다.

4. 계란

2007년 1~4월 산란용 마리 수는 평균 2억 8,700만수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1.2% 감소하였다. 산란용 마리 수 감소로 1분기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1.2%, 4월은 2%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07년 하반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 생산량 감소와 수출 증가로 1~4월의 계란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뉴욕 시장의 계란 도매가격 판당(12개들이) 102.5센트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크게(46%) 상승하였다. 5월에도 계란 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판당(12개들이) 평균 93센트에 형성되었다. 2007년 2분기 계란 평균 도매가격은 88~89센트로 예상된다. 2007년 하반기 계란 가격이 상반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 동기보다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LDP-M-155/June 19, 2007 발췌정리

호주, 2007년 2분기 축산업 전망

권 오 복*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는 분기별로 주요 농축산물 전망을 발표한다. 이때 해당 품목의 세계 수급과 교역전망을 함께 발표하기 때문에 호주의 분기 전망은 해당 품목의 최근 세계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쇠고기의 경우 호주는 한-미 FTA 타결과 우리나라가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 재개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쇠고기와 낙농제품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2/4분기 전망 내용을 옮긴다.

1. 쇠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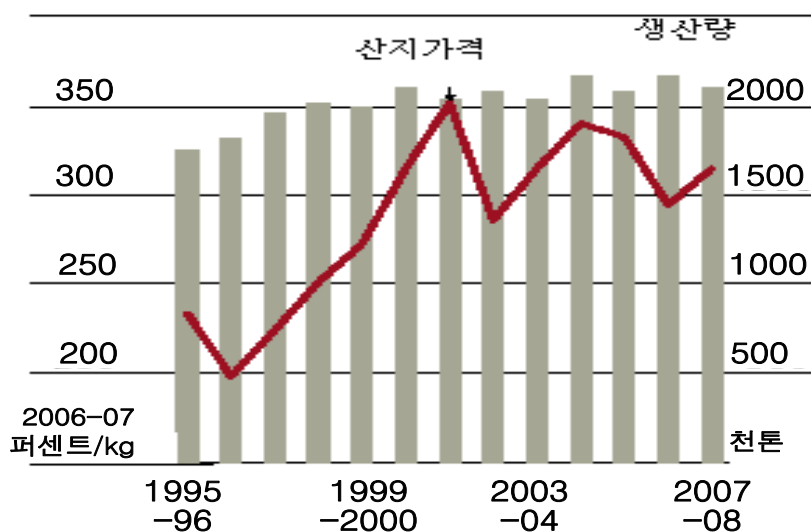
2007~08년 호주 국내 산지 소 가격은 전년대비 10% 높은 kg당 3달러 23센트로 예상된다. 이처럼 산지 소 값이 강세를 Eif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기후조건이 양호함에 따른 입식 수요가 증가하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광우병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 대해 적용하는 수입원칙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007~08년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다소 약세를 떨 전망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적용하던 수입원칙을 바꿔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bkwon@krei.re.kr 02-3299-4210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호주산 쇠고기 일부가 미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호주의 쇠고기 전망



2007~08년 호주 쇠고기 생산과 수출 감소할 듯

2006~07년 내내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수소와 암소 도축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2007년 1/4분기 암소도축비율은 2005년 3/4분기 41%보다 6%포인트 높은 47%였다.

2007~08년 기후조건이 전년보다 나아진다고 가정할 때 소 사육농가들은 재입식을 목적으로 더 많은 소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2007~08년 소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8% 정도 감소한 830만 두로 전망된다. 쇠고기 생산량도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어 210만 톤 정도로 예상된다.

2008년 6월까지 호주의 소 사육두수는 2800만 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6월 암소두수가 적어 2007~08년 송아지 수가 줄어들어 사육두수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08년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전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통제국은 OIE 분류상 중간단계로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험이 있지만 질병을 통제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명된 국가나, 광우병은 발병되지 않았지만 발병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해 적용된다. OIE에 따르면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미만의 모든 부위의 쇠고기와, 30개월령 이상인 경우 특정 위험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쇠고기는 수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1 호주 쇠고기 전망

	단위	2005-06	2006-07 s	2007-08 f	증감율(%)
가축수	백만두	28.5	27.6	28.0	1.4
소	백만두	25.7	24.9	25.4	2.0
도축두수	천두	8,401	9,013	8,300	-7.9
생산량	천톤	2,077	2,228	2,058	-7.6
수출(선적중량)					
대 미국	천톤	295	306	275	-10.1
대 일본	천톤	388	406	380	-6.4
대 한국	천톤	121	155	110	-29.0
계	천톤	892	979	890	-9.1
수출액	백만호주달러	4,272	4,372	4,374	0.0
생우수출	천두	549	592	640	8.1
가격					
산지가격	호주센트/kg	322	293	323	10.2
미국수입가격	미국센트/kg	276	283	299	5.7
일본수입가격	미국센트/kg	430	477	483	1.3

s: ABARE 추정치, f: ABARE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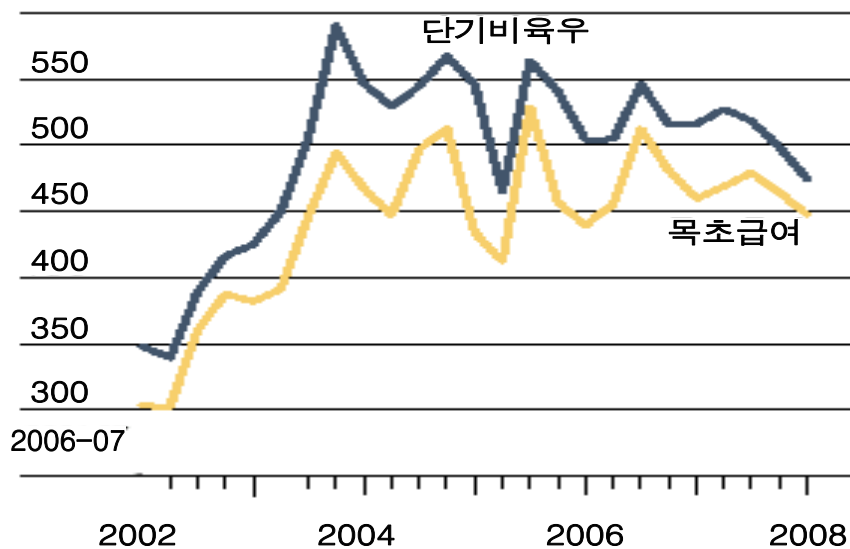
일본이 쇠고기 수입원칙을 바꿀지 또는 바꾼다면 언제쯤 바꿀지 모르는 상황에서 2007-08년에도 일본의 쇠고기 수입원칙이 그대로 고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미국의 대일본 쇠고기 수출이 단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와 같은 일본의 쇠고기 수입원칙 하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미국 쇠고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산 소 중 5%만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이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A40 또는 그 이하는 미국 도축 소 중 9%에 불과하다.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는 계속 강세를 유지할 전망

2007~08년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는 일본의 엄격한 수입원칙에 따라 미국산과의 경쟁이 계속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강세를 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08년 호주의 대일본 쇠고기 수출은 전년대비 6% 감소한 38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호주 내 산지 소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생산비가 상승해서 2007~08년 대일본 쇠고기 수출확대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곡물과 목초 급여 쇠고기의 kg당 2007~08년 가격은 각각 5달러 18센트, 4달러 77센트 등으로 전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그림 2 일본의 대 호주 쇠고기 수입가격



한국과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

2007년 4월초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원칙적

으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 40%에 달하는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동 협정에 따라 한국은 이행 첫해에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량이 27만 톤(광우병 발생 이전 수입물량을 20%을 초과하는 수준)을 초과하면 구제조치(safeguard provision)를 발동할 수 있다. 이 같은 발동 물량은 매년 6000톤씩 늘어나 이행 15년차에는 36만 톤에 이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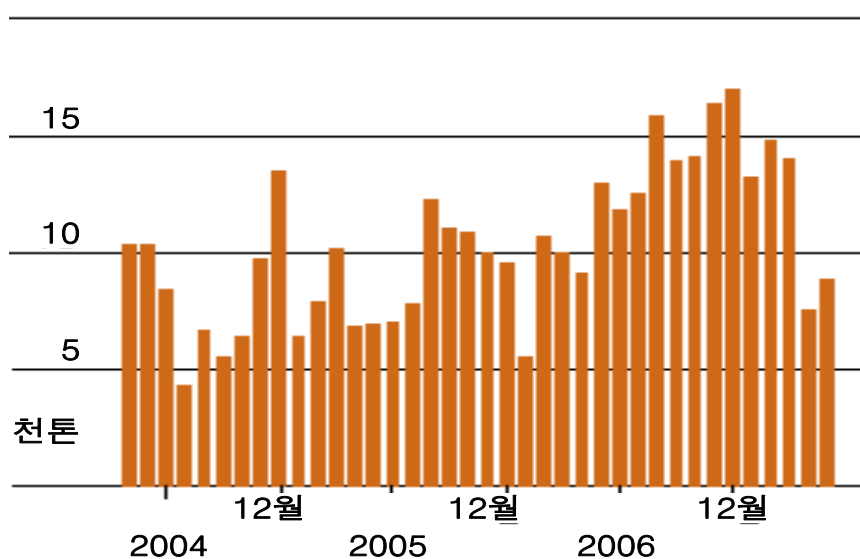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광우병과 관련된 수입원칙 자체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전반적인 수입정책에 다소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연내에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기타 검역과 관련된 이슈를 협의할 예정에 있다. 한국은 OIE가 최근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8단계에 걸친 안전성 평가 절차를 밟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2005년 한국이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8단계 위험평가를 실시한 사례를 감안할 때 양국 간의 협상에서 위험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게 하기 위해 한국이 현재의 수입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 2007년 하반기부터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대한국 쇠고기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경험에 비추볼 때 뼈를 포함한 쇠고기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의 55%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갈비 형태로 수입되었다.

미국이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가정할 때 미국이 특히 갈비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니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가격이 높아 수출 증가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07년 5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도매가격 기준으로 미국산 안심은 kg당 41000원으로서 호주산 가격 25000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다. 이 같은 가격은 kg당 38000원인 한우보다 더 비싼 수준이다.

2007~08년 호주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11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 심화와 호주 내 쇠고기 산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점 등 때문에 2007~08년 호주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호주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월별, 2007년 5월까지)



2007~08년 호주의 대미 쇠고기 수출 감소할 듯

2007~08년 미국과 우루과이 양 국에서 가공 쇠고기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2007년도 초에 목초지 사정이 좋아 미국 소 사육농가가 재입식을 늘려 2007~08년 미국의 암소도축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가공용 쇠고기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2007~08년 호주 암소도축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호주의 가공용 쇠고기 공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7~08년 호주의 대미 쇠고기 수출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27만 5000톤이 그치는 반면 수출가격은 6% 정도 상승해서 kg당 3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우 수출은 증가할 듯

2007~08년 호주의 생우수출은 전년대비 8% 정도 증가한 64만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수출에 적합한 생우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호주 북부에서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후가 계속되어 분만율이 높았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개체수가 늘었다.

인도네시아의 빠른 경제성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호주 생우 수출의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호주산 생우 수입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호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생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0% 정도 증가한 12만 5000두를 기록하였다.

2007~08년 호주의 전반적인 쇠고기 수출은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약 9% 감소한 89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호주의 전체적인 쇠고기 수출액은 호주 내 산지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 44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낙농제품

2007~08년 호주에서 우유의 농판가격은 전년대비 18% 높은 리터당 38.5센터로 전망된다. 이처럼 우유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우유의 세계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공급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의 주요 낙농생산지역에서 가뭄의 영향으로 우유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호주 우유 생산 농가는 우유가격이 좋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제한으로 세계 낙농제품 교역 영향 받을 듯

세계 낙농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 제한으로 말미암아 낙농제품의 세계 교역이 크게 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낙농제품가격이 계속 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07~08년 세계 낙농제품 교역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은 물과 초지의 부족을 가져다 준 호

주의 가뭄 효과와, 유럽연합에서 낙농시장 개혁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세계 최대 낙농제품 수출주체인 유럽연합의 2007년 우유 생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낙농제품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세계 낙농제품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역내에서 낙농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공동농업정책에서 낙농제품시장 개혁을 목적으로 추진한 낙농제품 지지가격 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역내 낙농제품 수요는 강세를 보이는 반면, 공급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대부분의 역내 낙농제품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생산이 소폭 증가하고 재고가 바닥나는 가운데 낙농제품에 대한 수출보조를 삭감하면 유럽연합의 낙농제품 수출을 줄어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낙농시장의 판도를 바꿔놓는 또 다른 요인은 유럽연합 내에서 낙농제품 수요구조의 변화이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 최근 치즈 소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치즈가 낙농제품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식품가공과 사료에 단백질 첨가제로서 수요가 여전히 큰 분유와 같은 다른 낙농제품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수출할 수 있는 분유의 양은 지난 6개월간 계속 감소하였고 2007년에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 않다.

생산쿼터로 인해 낙농제품 생산이 계속해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역내 낙농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앞으로 당분간 세계 낙농제품 무역에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낙농제품 가격의 강세와 젖소 사육두수의 증가로 2007~08년 뉴질랜드의 우유 생산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뉴질랜드 우유 생산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지만 뉴질랜드가 세계 낙농제품 가격의 강세에 맞춰 사육규모를 바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우유 생산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낙농제품 수출국으로 새롭게 부상한 아르헨티나의 우유 및 낙농제품 생산은

우유가공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와 사육기술의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상반기 아르헨티나 주요지역에서 홍수가 심하게 발생해서 우유 생산 증가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 낙농제품 수출을 줄이고 국내소비자에게 저렴한 낙농제품을 공급하려는 정책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낙농제품 수출이 제한을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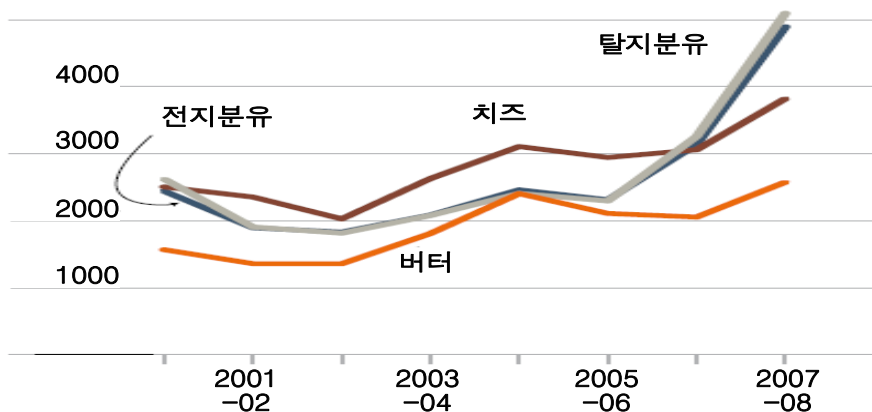
세계 낙농제품 가격 더 상승할 듯

세계 낙농제품 수요 증가가 생산과 수출 증가세를 능가하여 2007~08년 세계 낙농제품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주요 낙농제품 생산국과 수출국의 낙농제품 생산이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해 이미 2007년 상반기 낙농제품 가격이 상당정도로 올랐다.

분유의 세계 생산과 수출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2007~08년 분유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모두 전년대비 60% 정도 상승해 각각 톤당 5100달러(미화 기준)와 490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분유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유럽연합에서 생산이 감소한 반면 수요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분유 수출보조가 줄어들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세계 분유 공급은 뒤쳐져 있는 반면 아시아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유아용 분유와 식품가공용 수요가 강세를 띠 전망이다. 유럽연합에서는 동물사료 단백질 첨가제와 식품가공용을 중심으로 분유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08년 치즈 가격은 전년 대비 28% 상승한 톤당 3800달러(미화 기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치즈 소비는 특히 유럽연합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08년 유럽연합의 치즈 생산은 역내 수요와 세계 가격의 강세로 어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치즈생산이 증가해도 대부분 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치즈 소비의 증가와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하에서 치즈 수출보조금의 삭감으로 2007~08년 유럽연합의 치즈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4 세계 낙농제품 가격 전망



버터 가격 역시 세계적인 수요증가가 생산 증가를 앞질러 강세를 띠 전망이다. 2007~08년 버터 세계 가격은 톤당 2600달러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에서 버터 재고가 바닥이 나고 버터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세계 낙농제품 전망

	단위	2005-06	2006-07 s	2007-08 f	증감율(%)
젖소 두 수	천두	1,870	1,800	1,780	-1.1
우유 수량	리터/두	5,397	5,306	5,253	-1.0
생산					
계	백만리터	10,092	9,550	9,350	-2.1
시장 판매	백만리터	2,066	2,150	2,186	1.7
가공 용	백만리터	8,026	7,400	7,164	-3.2
버터	천톤	146	130	131	0.8
치즈	천톤	373	360	331	-8.1
전지분유	천톤	158	143	143	0.0
탈지분유	천톤	212	190	198	4.2
우유 가격	호주센트/리터	33.1	32.6	38.5	18.1
수출액	백만호주달러	2,570	2,257	2,448	8.5
세계 가격					
버터	미국달러/톤	1,998	2,002	2,575	28.6
치즈	미국달러/톤	2,792	2,984	3,825	28.2
탈지분유	미국달러/톤	2,175	3,179	5,100	60.4
전지분유	미국달러/톤	2,192	3,062	4,900	60.0

s: ABARE 추정치, f: ABARE 전망치

2007~08년 호주 낙농생산 감소할 전망

2006~07년 호주의 우유 생산은 주요 우유생산지역에서 극심한 한발로 인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95억 5000만 리터에 달했다.

2006~07년 초기 기후가 따뜻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유 생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지속적인 가뭄으로 관개수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초지 성장이 지장을 받아 사료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사육농가가 사육규모를 줄였다.

금년 4월, 5월, 6월의 강우량으로 인해 사육규모를 줄이려고 했던 농가들은 다소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에는 강우량이 충분치 않다. 이에 따라 목초 가격은 새로운 목초가 나오는 봄까지 계속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006~07년 한발의 영향을 받은 낙농지역은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지역이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해안지역과 남부지역에서는 기후조건이 좋아 우유 생산이 증가하였다. 2006~07년 남부 호주에서 우유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7~08년 기후조건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유 생산은 주요 낙농생산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낮은 물 분배와 젖소 사육두수의 감소로 2007~08년 호주의 우유 생산은 전년대비 2% 정도 감소한 93억 5천만 리터에 그칠 전망이다.

농가판매가격 큰 폭으로 상승할 듯

2005~06년 리터당 33.1센트에서 2006~07년 32.6센트로 하락한 이후 우유의 농가판매가격은 18% 상승한 38.5 센트로 전망된다. 이처럼 우유의 농가판매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 것은 분유와 치즈와 같은 낙농제품의 세계 가격 강세와 가공업자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하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낙농제품 수출액 2007~08년에는 증가할 듯

2006~07년 호주의 낙농제품 수출액은 수출가능 물량의 부족으로 전년대비 12% 정도 감소한 22억 6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7~08년에는 수출물량 감소를 상쇄할 만큼 수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에 비해 9% 늘어난 24억 5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분유 가격이 강세를 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07~08년 호주 분유 수출액도 전년대비 57% 증가한 8억 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전지분유 수출액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3억 4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호주의 버터, 치즈, 카세인 수출액은 수출가격이 강세를 띠어도 불구하고, 물량 감소폭이 커서 전년대비 각각 1%, 12%, 54% 정도 감소한 1억 7천만, 5억 9200만, 4600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Sally Fletcher, Caroline Gunning-Trant, Frank Drum and Peter Berry, "Livestock," *Australian Commodities*(Vol. 14, No. 2, June Quarter 2007) 발췌정리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7년 8월 농업협상 동향

DDA, 2007년 8월 농업협상 동향

주 현 정*

WTO 회원국은 지난 7월 17일 크로포드 펠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발표한 개정된 세부원칙(Modalities)의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4일 농업부문 비공식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비공식 특별회의 결과 회원국들은 펠코너 의장의 문서가 각국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는 하였으나 완전히 채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펠코너 의장은 회의 결과로 수렴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9월 3일 이후 비공식 및 공식적인 회의와 심의회를 거친 후 모델리티 초안의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 7월 24일 농업부문 비공식 특별회의 결과

7월 24일 열린 하루 동안의 회의에서 51개의 회원국은 대체적으로 펠코너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 내용에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회원국들은 일부 분야에서는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9월 초에 추가의 개정을 위해 열릴 회의에서 이 부문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hj1013@krei.re.kr 02-3299-4262

특히, 케언즈 그룹 등의 농업수출국들은 농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 장벽과 무역왜곡보조(OTDS)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G-10과 같은 농산물 수입국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를 더 느끼며 초안 문서에 그들을 위한 내용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회원국들이 수많은 시장접근의 현안이 여전히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팰코너 의장은 이러한 원인은 이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스위스는 의장의 초안 문서에 대하여 기각되지 않을 만큼은 좋지만 채택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인도는 이 문서가 협상의 현실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였으며 회원국들에게 협상의 방향을 잡아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1.1. 시장접근

이 분야는 협상국들의 관심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가장 힘든 영역으로 남아있다. 소규모취약경제(SVE)국만이 적당한 감축과 유동성을 위한 다양한 틀을 제시받아 이 문서에 대해 흡족해했다.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일부 개도국, 케언즈 그룹은 회원국들을 일반적인 감축 수준에서 이탈하게 하는 다양한 유연성에 대한 의견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강경개도국 국가인 G-20은 가장 높은 관세에 대한 상한을 요구하였으며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나 더 많은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 개발도상국의 시장접근, 특히 특별품목(Special Products)¹⁾, 특별세이프가드(SSG; Special Safeguard)²⁾,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³⁾에

1)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정할 수 있는 상품 품목

2)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대한 구체적인 수준으로의 접근이 어려움을 말하였다.

G-33과 이와 유사한 회원국들은 일부 특별품목의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특별세이프가드를 유지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G-10 그룹은 관세형태의 조합과 추가적인 유연성에 관한 조건이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순수 식량 수입업자들은 자유화를 위하여 이미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한다.

1.2. 국내보조

수많은 개도국과 케언즈 그룹은 관세 허용 상한을 단지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역 왜곡보조(OTDS)⁴⁾의 삭감을 요구하였다. G-20 그룹은 AMS와 Blue Box의 특정 수준에 대한 효과적인 방침과 OTDS를 10단위로 낮출 것을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1.3. 수출경쟁

신용과 보험 같은 수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출자금지원 시스템과 수출국의 독점력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안에 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1.4. 기타 이슈

많은 개도국이 고관세에 대하여 관세 상한을 요구하였다. 한편 EU와 스위스는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락 시에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

- 3) 농산물 가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
- 4) 감축의무 또는 제약이 따르는 감축보조(AMS), 감축면제보조(De-minimis), 과도기적 보조(Blue Box)를 합친 국내무역보조금을 일컫음.

2. 주요국별 반응

일본은 그 동안 강력히 도입을 반대해온 관세 상한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만족하였으나, 민감 품목의 수 및 취급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했다. 즉, 민감 품목의 수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유세(有稅)품목(일본은 1,013품목)이 아닌 전체 품목(1,332품목)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관세를 철폐하고 시장개방을 추진해온 국가일수록 유세품목은 적어지고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민감 품목의 수를 유세품목의 6% 혹은 8%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례에 대해서도 조건이나 대가를 없애도록 요구했다. 조건은 2가지가 있는데, 모두 일본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감 품목을 확대할 대가로서 저(低)관세수입 범위의 추가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은 의장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관세 상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등 강경 개발도상국(G-20)은 민감 품목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며, 저관세수입 범위도 “줄여야 할 특례가 너무 많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미국 이외 국가들은 미국의 국내보조금의 총 한도액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EU는 중요품목 이외의 일반품목의 관세삭감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였다. 저관세 수입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EU는 일본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⁵⁾

한국은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를 세부원칙 초안에 반영하려 한 의장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다. 즉, 세부원칙 초안에 개도국의 특별품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수준과 지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관세 구간의 품목 수가 많은 경우(100% 이상, 세번수 5% 이상) 추가적으로 TRQ를 증량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정부는 세부

5) 일본농업신문 2007년 7월28일

원칙 초안을 심층 분석하여 연내협상타결을 염두에 두고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와 관심 사항이 유사한 G-10, G-33과의 공조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 설명하였다.⁶⁾

3. 향후 일정

팰코너 의장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9월 3일에 회의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위적인 마감시한은 없지만 이 시기는 모델리티 초안의 추가적인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였다.

표 1 WTO 협상 관련 주요 일정, 2007년

일정	회의명	내용	장소
09/13-14	무역과 개발에 관한 WTO 위원회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관한 리뷰	Lima
09/19	무역과 개발에 관한 WTO 위원회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관한 리뷰	Manila
09/25	무역과 개발에 관한 WTO 위원회	무역보조에 관한 세션	Geneva
10/01-02	WTO	아프리카의 지역적인 회의	Dar es Salaam
10/04-05	WTO	WTO가 세계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공공포럼	Geneva

9월 3일 오후 팰코너는 전체 회원국과 비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9월 4일부터 21일까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회원국과 주요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비공식적인 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협상은 남아있는 이슈를 해결하는데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이슈에는 경사관세, 수입쿼터관리, 특별품목, 특별세이프가드, 열대작물, 특혜(관세)잠식(Preference

6) 농림부 보도자료 07.30.

Erosion)⁷⁾ 등이 있다.

한편, 회원국들은 8월 기간 동안 공식적인 회의는 없으나 9월 정식회의를 대비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회의를 소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농림부 농업협상과, 보도자료 2007. 07. 30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07년 7월28일자
Geneva Watch Vol.7. no. 28/29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155

7) 일부 품목을 낮은 특혜관세로 EU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의 소규모 국가에서 주로 일어남.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7. 8)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8)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7. 8)

성명환*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8월 10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7/08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20억 9,141만 톤, 소비량은 2.7% 증가한 21억 413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3.8% 감소한 3억 1,948만 톤, 기말재고율은 1.0% 포인트 감소한 15.2%로 전망되었다.

1. 전체 곡물

2007/08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0억 9,14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을 포함한 소맥, 옥수수 등 대부분 곡물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3,219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4억 2,361만 톤으로 전년보다 1.8%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4,305만 톤 늘어난 수준이다.

2007/08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21억 413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07년도보다도 5,577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hsung@krei.re.kr 02-3299-4366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0.2% 증가한 2억 4,75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전년보다는 약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4/05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였으나 2005/06년도부터 역전되었고 2007/08년도의 경우 소비량이 생산량을 1,27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3.8% 감소한 3억 1,948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6/07년도보다 1.0% 포인트 감소한 15.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7	2007.8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19.00	1,990.12	2,098.70	2,091.41	5.1	△0.3
공 급 량	2,422.92	2,380.56	2,429.31	2,423.61	1.8	△0.2
소 비 량	2,032.49	2,048.36	2,103.48	2,104.13	2.7	0.0
교 역 량	252.51	246.94	242.81	247.52	0.2	1.9
기말재고량	390.43	332.19	325.83	319.48	△3.8	△1.9
기말재고율	19.2	16.2	15.5	15.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49, August 10, 2007.

2. 쌀

2007/08년도 쌀 생산량은 2006/07년 보다 0.7% 증가한 4억 2,119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지역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4억 2,477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1,821만 톤보다 약 65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2007/08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2,98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태국의 수출량이 전년대비 각각 8.7%, 4.7% 씩 증가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4.6% 감소한 7,383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 기말재고율은 17.4%로 전년도의 18.5%보다 약 1.1% 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미국의 재고량이 87만 톤으로 전망되어 지난해 보다 35.66나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재고량도 각각 5.4%, 0.8%, 19.2%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의 재고량은 12.2% 늘어날 전망이다.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7	2007.8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18.04	418.07	420.81	421.19	0.7	0.1
공 급 량	493.06	495.62	496.39	498.60	0.6	0.4
소 비 량	415.51	418.21	424.40	424.77	1.6	0.1
교 역 량	30.05	29.36	29.79	29.84	1.6	0.2
기말재고량	77.55	77.41	71.99	73.83	△4.6	2.6
기말재고율	18.7	18.5	17.0	17.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49, August 10, 2007.

3. 소맥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

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2.9% 많은 6억 1,0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년도 이상기후로 급격히 줄어들었던 호주의 소맥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캐나다는 식부면적 감소로 전년도보다 14.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6/07년 6억 1,725만 톤보다 약 326만 톤 증가한 6억 2,05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소비량은 4.4% 늘어나는 반면 중국, EU, 러시아는 각각 0.5%, 2.2%, 1.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2005/06년 1억 1,544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6/07년에는 1억 738만 톤으로 줄어들었다가 2007/08년에는 전년도보다 1.3% 늘어난 1억 87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북아프리카의 수입량이 각각 18.2%, 10.8% 증가하는 반면 인도와 브라질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각각 55.2%, 10.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 기말재고량은 1억 1,478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8.1%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81/8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EU와 미국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각각 20.5%, 11.4%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20.2%에서 18.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7	2007.8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22.64	592.98	612.27	610.40	2.9	△0.3
공 급 량	773.65	742.14	736.42	735.30	△0.9	△0.2
소 비 량	624.49	617.25	619.87	620.51	0.5	0.1
교 역 량	115.44	107.38	107.57	108.75	1.3	1.1
기말재고량	149.16	124.90	116.55	114.78	△8.1	△1.5
기말재고율	23.9	20.2	18.8	18.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49, August 10, 2007.

4. 옥수수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9.9% 늘어난 7억 7,15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23.9%, 6.7%, 5.5%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7억 6,94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에탄올 생산에 대한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13.6% 증가하고 멕시코도 전년대비 9.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20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07/08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8,601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3.5%, 18.6%로 이들 두 국가가 82.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2.4%, 1.3%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억 22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대비 약 200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2007/08년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0.5% 포인트 줄어든 13.3%가 될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7	2007.8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96.18	702.16	777.10	771.50	9.9	△0.7
공 급 량	826.94	825.07	878.05	871.70	5.7	△0.7
소 비 량	704.02	724.87	769.70	769.48	6.2	0.0
교 역 량	80.89	86.93	82.75	86.01	△1.1	3.9
기말재고량	122.91	100.20	108.36	102.23	2.0	△5.7
기말재고율	17.5	13.8	14.1	13.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49, August 10, 2007.

5. 대두

2007/08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162만 톤으로 전년대비 6.1%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생산량은 3.4% 늘어날 전망이지만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는 각각 17.7%, 6.2%, 0.4%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6/07년 2억 2,360만 톤보다 961만 톤 늘어난 2억 3,32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소비량이 15.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7,53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36.8%, 브라질이 39.4%, 아르헨티나가 13.5%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약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이 줄어드는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5,163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6,452만 톤과 비교하여 20.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6.8% 포인트 낮은 22.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7	2007.8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20.56	236.07	222.05	221.62	△ 6.1	△ 0.2
공 급 량	269.01	289.98	286.22	286.14	△ 1.3	0.0
소 비 량	215.27	223.60	234.17	233.21	4.3	△ 0.4
교 역 량	63.97	70.75	75.49	75.38	6.5	△ 0.1
기말재고량	53.91	64.52	51.87	51.63	△ 20.0	△ 0.5
기말재고율	25.0	28.9	22.2	22.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49, August 10, 2007.

6. 대두박

2007/08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5,979만 톤으로 전년대비 4.8%, 소비량은 1억 5,912만 톤으로 전년대비 5.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7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5,60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아르헨티나가 52.4%, 브라질 21.4%, 미국이 13.3%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87.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38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513만 톤과 비교하여 4.9%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 기말재고율은 전년과 동일한 3.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7	2007.8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45.62	152.41	160.38	159.79	4.8	△0.4
공 급 량	151.55	157.50	165.55	164.92	4.7	△0.4
소 비 량	145.68	151.55	159.41	159.12	5.0	△0.2
교 역 량	51.42	53.38	56.11	56.03	5.0	△0.1
기말재고량	5.09	5.13	5.42	5.38	4.9	△0.7
기말재고율	3.5	3.4	3.4	3.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49, August 10, 2007.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7	2007.8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93.06	495.62	496.39	498.60	0.6	0.4
기초재고량	75.02	77.55	75.58	77.41	△0.2	2.4
생산량	418.04	418.07	420.81	421.19	0.7	0.1
미국	7.11	6.24	6.08	6.08	△2.6	0.0
태국	18.20	18.25	18.40	18.40	0.8	0.0
베트남	22.77	22.70	22.99	22.99	1.3	0.0
인도네시아	34.96	33.30	34.00	34.00	2.1	0.0
중국	126.41	128.00	129.70	129.70	1.3	0.0
일본	8.26	7.79	7.94	7.94	1.9	0.0
수입량	26.15	28.65	27.43	27.68	△3.4	0.9
인도네시아	0.54	1.90	1.60	1.60	△15.8	0.0
중국	0.65	0.70	0.90	0.90	28.6	0.0
일본	0.67	0.65	0.70	0.70	7.7	0.0
소비량	415.51	418.21	424.40	424.77	1.6	0.1
미국	3.84	3.93	3.99	3.99	1.5	0.0
태국	9.54	9.87	9.60	9.60	△2.7	0.0
베트남	18.39	18.50	18.75	18.75	1.4	0.0
인도네시아	35.74	35.55	36.00	36.15	1.7	0.4
중국	128.00	127.80	129.10	129.10	1.0	0.0
일본	8.25	8.25	8.15	8.15	△1.2	0.0
수출량	30.05	29.36	29.79	29.84	1.6	0.2
미국	3.66	3.00	3.26	3.26	8.7	0.0
태국	7.38	8.60	9.00	9.00	4.7	0.0
베트남	4.71	4.70	4.70	4.70	0.0	0.0
기말재고량	77.55	77.41	71.99	73.83	△4.6	2.6
미국	1.37	1.35	0.86	0.87	△35.6	1.2
태국	3.59	3.38	3.33	3.19	△5.6	△4.2
베트남	1.32	1.27	1.26	1.26	△0.8	0.0
인도네시아	3.21	2.86	2.20	2.31	△19.2	5.0
중국	36.78	36.28	36.28	36.28	0.0	0.0
일본	2.40	2.38	2.67	2.67	12.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49, August 10, 2007.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7	2007.8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73.65	742.14	736.42	735.30	△0.9	△0.2
기초재고량	151.01	149.16	124.15	124.90	△16.3	0.6
생산량	622.64	592.98	612.27	610.40	2.9	△0.3
미국	57.28	49.32	58.19	57.53	16.6	△1.1
호주	25.37	9.90	23.00	23.00	132.3	0.0
캐나다	26.78	25.27	22.50	21.50	△14.9	△4.4
EU27	132.36	124.80	126.63	124.93	0.1	△1.3
중국	97.45	104.00	105.00	105.00	1.0	0.0
러시아	47.70	44.90	45.00	45.50	1.3	1.1
수입량	109.72	109.27	105.22	105.92	△3.1	0.7
EU27	6.76	5.50	6.00	6.50	18.2	8.3
브라질	6.72	7.60	6.80	6.80	△10.5	0.0
북아프리카	18.56	15.30	16.95	16.95	10.8	0.0
파키스탄	0.95	0.10	0.15	0.15	50.0	0.0
인도	0.03	6.70	3.00	3.00	△55.2	0.0
러시아	1.28	1.20	1.20	1.20	0.0	0.0
소비량	624.49	617.25	619.87	620.51	0.5	0.1
미국	31.36	31.05	33.37	32.41	4.4	△2.9
EU27	127.53	125.70	122.50	122.90	△2.2	0.3
중국	101.00	101.00	100.50	100.50	△0.5	0.0
파키스탄	21.50	21.90	22.40	22.40	2.3	0.0
러시아	38.40	36.60	36.20	36.20	△1.1	0.0
수출량	115.44	107.38	107.57	108.75	1.3	1.1
미국	27.29	24.73	28.58	29.26	18.3	2.4
캐나다	16.10	19.20	15.00	15.00	△21.9	0.0
EU27	15.69	13.50	12.00	11.50	△14.8	△4.2
기말재고량	149.16	124.90	116.55	114.78	△8.1	△1.5
미국	15.55	12.40	11.38	10.99	△11.4	△3.4
EU27	23.38	14.48	12.61	11.51	△20.5	△8.7
중국	34.89	35.56	38.34	38.06	7.0	△0.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49, August 10, 2007.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7	2007.8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26.94	825.07	878.05	871.70	5.7	△0.7
기초재고량	130.76	122.91	100.95	100.20	△18.5	△0.7
생산량	696.18	702.16	777.10	771.50	9.9	△0.7
미국	282.31	267.60	326.15	331.58	23.9	1.7
아르헨티나	15.80	22.50	24.00	24.00	6.7	0.0
EU27	61.15	55.19	55.23	48.43	△12.2	△12.3
멕시코	19.50	22.00	23.20	23.20	5.5	0.0
동남아시아	16.48	16.87	17.08	17.08	1.2	0.0
중국	139.36	145.00	148.00	148.00	2.1	0.0
수입량	79.41	84.90	82.33	85.33	0.5	3.6
이집트	4.40	4.60	4.30	4.50	△2.2	4.7
EU27	2.63	5.30	3.50	6.00	13.2	71.4
일본	16.62	16.20	16.10	16.10	△0.6	0.0
멕시코	6.79	8.50	10.20	10.20	20.0	0.0
동남아시아	4.40	4.05	4.20	4.20	3.7	0.0
한국	8.48	9.20	9.10	9.10	△1.1	0.0
소비량	704.02	724.87	769.70	769.48	6.2	0.0
미국	232.06	235.60	266.46	267.73	13.6	0.5
EU27	61.50	59.20	60.80	60.80	2.7	0.0
일본	16.70	16.50	16.20	16.20	△1.8	0.0
멕시코	27.90	30.30	33.30	33.30	9.9	0.0
동남아시아	20.25	20.45	21.35	21.35	4.4	0.0
한국	8.58	9.30	9.20	9.20	△1.1	0.0
중국	137.00	143.00	148.00	148.00	3.5	0.0
수출량	80.89	86.93	82.75	86.01	△1.1	3.9
미국	54.20	53.34	50.80	54.61	2.4	7.5
아르헨티나	9.46	15.80	16.00	16.00	1.3	0.0
중국	3.73	4.50	3.00	3.00	△33.3	0.0
기말재고량	122.91	100.20	108.36	102.23	2.0	△5.7
미국	49.97	28.88	38.15	38.50	33.3	0.9
아르헨티나	1.16	1.16	2.36	2.06	77.6	△12.7
EU27	9.93	10.72	8.35	4.05	△62.2	△51.5
중국	35.26	32.86	29.96	29.96	△8.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49, August 10, 2007.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7	2007.8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69.01	289.98	286.22	286.14	△1.3	0.0
기초재고량	48.45	53.91	64.17	64.52	19.7	0.5
생산량	220.56	236.07	222.05	221.62	△6.1	△0.2
미국	83.37	86.77	71.44	71.45	△17.7	0.0
아르헨티나	40.50	47.20	47.00	47.00	△0.4	0.0
브라질	57.00	59.00	61.00	61.00	3.4	0.0
중국	16.35	16.20	15.60	15.20	△6.2	△2.6
수입량	64.14	68.89	75.31	74.09	7.5	△1.6
중국	28.32	28.75	34.50	33.50	16.5	△2.9
EU27	13.95	15.80	14.88	14.88	△5.8	0.0
일본	3.96	4.10	4.15	4.15	1.2	0.0
소비량	215.27	223.60	234.17	233.21	4.3	△0.4
미국	52.61	53.51	53.47	53.47	△0.1	0.0
아르헨티나	33.34	34.81	40.08	40.08	15.1	0.0
브라질	31.17	32.65	32.28	32.28	△1.1	0.0
중국	44.54	45.83	50.00	48.45	5.7	△3.1
EU27	14.99	16.18	15.89	16.75	3.5	5.4
일본	4.19	4.31	4.33	4.33	0.5	0.0
멕시코	3.86	4.01	4.05	4.05	1.0	0.0
수출량	63.97	70.75	75.49	75.38	6.5	△0.1
미국	25.58	29.94	27.76	27.76	△7.3	0.0
아르헨티나	7.25	8.00	10.20	10.20	27.5	0.0
브라질	25.91	24.60	29.69	29.69	20.7	0.0
기말재고량	53.91	64.52	51.87	51.63	△20.0	△0.5
미국	12.23	15.66	6.67	5.99	△61.7	△10.2
아르헨티나	17.45	23.55	21.46	22.07	△6.3	2.8
브라질	16.73	18.54	17.63	17.63	△4.9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49, August 10, 2007.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7	2007.8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51.55	157.50	165.55	164.92	4.7	△0.4
기초재고량	5.93	5.09	5.17	5.13	0.8	△0.8
생산량	145.62	152.41	160.38	159.79	4.8	△0.4
미국	37.42	38.58	38.86	38.86	0.7	0.0
아르헨티나	25.02	26.25	30.23	30.23	15.2	0.0
브라질	21.84	23.05	22.74	22.74	△1.3	0.0
인도	4.77	5.27	5.41	5.41	2.7	0.0
중국	27.30	28.25	31.48	30.25	7.1	△3.9
수입량	50.63	52.57	55.39	55.61	5.8	0.4
EU27	22.82	23.30	23.60	24.20	3.9	2.5
중국	0.84	0.15	0.50	0.50	233.3	0.0
소비량	145.68	151.55	159.41	159.12	5.0	△0.2
미국	30.11	30.98	31.39	31.53	1.8	0.4
아르헨티나	0.57	0.60	0.64	0.64	6.7	0.0
브라질	9.60	10.20	10.88	10.88	6.7	0.0
인도	1.55	1.95	1.98	1.98	1.5	0.0
EU27	32.76	34.21	34.32	35.56	3.9	3.6
중국	27.78	27.72	31.43	30.20	8.9	△3.9
수출량	51.42	53.38	56.11	56.03	5.0	△0.1
미국	7.30	7.76	7.62	7.48	△3.6	△1.8
아르헨티나	24.19	25.71	29.34	29.34	14.1	0.0
브라질	12.90	12.66	12.00	12.00	△5.2	0.0
인도	3.68	3.54	3.47	3.47	△2.0	0.0
기말재고량	5.09	5.13	5.42	5.38	4.9	△0.7
미국	0.29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20	1.15	1.40	1.40	21.7	0.0
브라질	1.12	1.54	1.62	1.62	5.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49, August 10, 2007.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 ¹⁾	소비량 ²⁾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900	242,292	203,249	25,251	39,043	19.2
2006/07(E)	199,012	238,056	204,836	24,694	33,219	16.2
2007/08(P)	209,141	242,361	210,413	24,752	31,948	15.2

주 :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e/commodity/wasde/latest.pdf>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8)

성 명 환*

미국 농업부(USDA)가 2007년 8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가격은 전년대비 9.3% 상승한 톤당 529달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대비 11.0% 상승한 톤당 334달러이다.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7년 9월물 인도분 (8월 13일 현재) 소맥 가격은 전년대비 69.7% 상승한 톤당 241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7년 9월물 인도분 (8월 13일 현재) 옥수수 가격은 전년대비 47.7% 상승한 톤당 130달러, 2007년 8월물 인도분 (8월 13일 현재) 대두 가격은 전년대비 47.7% 상승한 톤당 316달러이다.

1.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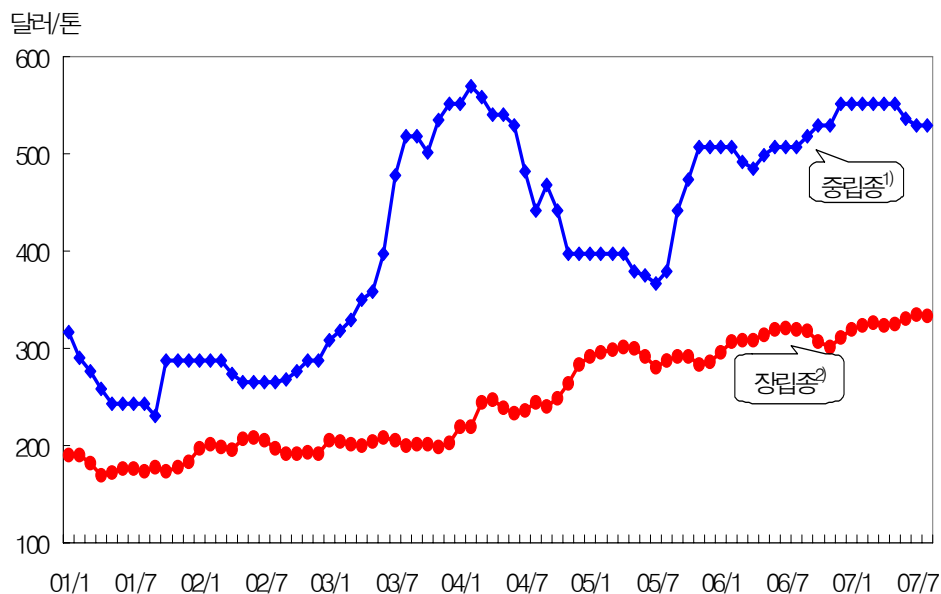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점차 하락한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2005년 9월부터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로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 2006년 3월은 톤당 491달러로 하락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hsung@krei.re.kr 02-3299-4366

2006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8월 현재 전년대비 9.3%, 전년 동월대비 4.3% 상승한 톤당 529달러 수준이다. 미국에서 쌀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어 2007/08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의 수출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란 등 아시아 국가들의 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태국산 쌀가격이 상승하였다. 2007년 8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톤당 334달러로 전년대비 11.0%,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하였지만 전월보다는 0.3% 하락한 수준이다.

그림 1 월별 쌀 국제가격 동향



자료 : USDA, Rice Outlook.

주 :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급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2. 소맥

2005년 상반기까지 국제 소맥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7월에는 18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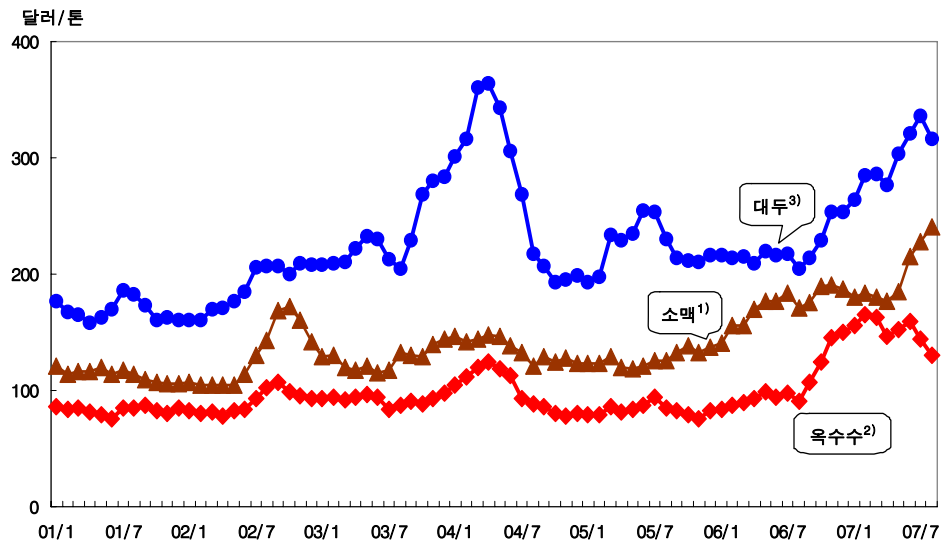
2007년 9월물 인도분 소맥가격은 8월 13일 현재 톤당 241달러로 전년대비 69.7%, 전월대비 5.7% 상승하였다. 2007/08년도 미국, EU,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 소맥 재고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국제 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옥수수

옥수수 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가격은 2007년 9월물 인도분이 2007년 8월 13일 현재 톤당 130달러로 전년대비 47.7%, 전년동월대비 42.9% 상승하였다. 2007/08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재고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 가격은 전월보다 9.7% 하락한 수준이다. 2007/08년도 옥수수 가격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월별 소맥 · 옥수수 · 대두가격 동향



자료 :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주 : (1) 소맥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4. 대두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국제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7년 8월물 인도분 대두 국제가격은 2007년 8월 13일 현재 톤당 316달러로 전년대비 47.7%, 전년동월대비 54.1% 상승하였지만 전월보다는 5.7% 하락한 수준이다. 2007/08년도 대두 생산량과 공급량이 줄어들고 기말재고량도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와 같은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2004/05	2005/06	2006.8	2007.7	2007.8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쌀 태국 ¹	278	301	319	335	334	11.0	4.7	△0.3
캘리포니아 ¹	405	484	507	529	529	9.3	4.3	0.0
소 맥 ²	126	142	171	228	241	69.7	40.9	5.7
옥 수 수 ³	83	88	91	144	130	47.7	42.9	△9.7
대 두 ³	219	214	205	335	316	47.7	54.1	△5.7

주 : (1) 태국 100% grade B, California Medium Grain 1등급, 2007년 8월 가격은 USDA, Rice Outlook 자료임.

(2)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007년 8월 13일 기준 가격임. USDA AMS and ERS.

(3)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07년 8월 13일 기준 가격임. USDA AMS and ERS.

표 2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연도 ¹⁾	쌀				소맥 ³⁾	옥수수 ⁴⁾	대두 ⁴⁾
	미국 ²⁾		태국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자료 : USDA ERS

주 : (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http://www.ams.usda.gov/LSMNpubs/PDF_Daily/DGR.pdf



통계자료

세계 쌀 통계

표 1 세계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132,655	213,012	8,465	7,729	209,876	28,827	56.6
1971	134,831	215,772	8,446	8,477	215,920	28,710	57.0
1972	132,667	208,937	8,496	7,976	212,976	24,151	55.2
1973	136,288	227,555	7,714	7,896	222,575	29,313	56.5
1974	137,796	225,662	7,400	7,690	226,505	28,760	56.5
1975	142,887	243,144	7,838	7,861	232,537	39,390	56.9
1976	141,429	235,807	9,831	8,608	235,134	38,840	56.6
1977	143,409	250,601	9,426	9,301	244,530	44,786	57.9
1978	143,618	262,369	11,486	11,606	252,428	54,847	58.7
1979	141,223	256,788	12,044	11,227	256,767	54,044	58.7
1980	144,389	269,908	12,413	11,258	270,066	52,606	60.7
1981	144,375	277,902	11,726	10,232	278,456	50,503	61.6
1982	140,526	285,036	10,731	9,884	277,895	56,781	60.4
1983	144,613	306,942	12,515	10,708	292,600	69,316	62.5
1984	144,152	316,758	10,740	10,615	298,287	87,662	62.6
1985	144,819	317,971	11,485	10,311	306,769	97,690	63.3
1986	144,821	316,046	13,063	10,686	308,055	103,304	62.5
1987	141,382	314,527	11,572	10,377	311,386	105,250	62.1
1988	146,148	331,393	14,015	11,564	322,512	111,680	63.2
1989	147,327	344,630	11,484	10,499	334,685	120,640	64.5
1990	146,447	350,281	12,115	10,509	342,647	126,668	65.0
1991	147,184	352,586	14,448	11,951	349,932	126,825	65.3
1992	146,211	353,344	14,876	12,922	354,891	123,324	65.2
1993	145,028	354,363	15,817	16,113	358,858	119,125	65.0
1994	147,165	363,411	21,010	19,348	363,093	117,781	64.8
1995	147,924	368,429	19,807	18,089	366,135	118,357	64.4
1996	149,661	380,439	19,102	16,879	375,996	120,577	65.2
1997	150,913	386,564	26,620	24,196	376,860	127,857	64.5
1998	152,407	394,240	25,594	25,174	387,314	134,363	65.4
1999	155,037	408,443	22,827	20,269	396,700	143,548	66.2
2000	151,504	398,492	24,107	21,696	392,361	147,268	64.6
2001	150,520	399,112	26,872	25,858	411,944	133,422	67.0
2002	145,761	377,507	28,650	26,106	404,792	103,593	65.0
2003	147,951	391,307	27,344	24,656	410,107	82,105	65.1
2004	150,366	400,668	28,449	25,447	404,753	75,018	63.5
2005	152,308	417,685	30,043	26,081	411,190	77,551	63.7
2006	152,825	417,714	29,345	28,549	417,056	77,413	63.9
2007	153,691	420,830	29,831	27,581	422,162	73,831	63.9

표 2 한국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1,203	3,939	0	937	4,945	4	1,53.4
1971	1,190	3,998	0	584	3,973	613	1,20.8
1972	1,191	3,957	0	437	4,296	711	1,28.2
1973	1,182	4,212	0	206	4,641	488	1,36.2
1974	1,204	4,445	0	489	4,707	715	1,35.7
1975	1,218	4,669	0	168	4,646	906	1,31.7
1976	1,215	5,215	0	55	5,100	1,076	1,42.2
1977	1,230	6,006	80	0	5,784	1,218	1,58.7
1978	1,230	5,797	0	501	6,764	752	1,82.7
1979	1,233	5,136	0	580	5,786	682	1,54.2
1980	1,233	4,000	0	2245	5,432	1,495	1,42.5
1981	1,224	5,063	0	269	5,404	1,423	1,39.6
1982	1,188	5,175	0	216	5,303	1,511	1,34.8
1983	1,228	5,404	135	7	5,540	1,247	1,38.8
1984	1,231	5,682	0	0	5,497	1,432	1,36.0
1985	1,237	5,626	0	0	5,807	1,251	1,42.3
1986	1,236	5,607	0	0	5,700	1,158	1,38.3
1987	1,262	5,493	0	1	5,506	1,146	1,32.3
1988	1,260	6,053	0	2	5,591	1,610	1,33.0
1989	1,257	5,898	1	11	5,468	2,050	1,28.8
1990	1,244	5,606	17	2	5,490	2,151	1,28.1
1991	1,209	5,385	2	1	5,526	2,009	1,27.6
1992	1,157	5,331	2	1	5,500	1,839	1,25.6
1993	1,136	4,750	0	0	5,424	1,165	1,22.5
1994	1,102	5,060	151	1	5,406	669	1,20.7
1995	1,056	4,694	0	115	5,230	248	1,15.5
1996	1,050	5,323	0	0	5,070	501	1,10.9
1997	1,052	5,450	0	77	5,216	812	1,13.0
1998	1,059	5,100	0	99	5,280	731	1,13.3
1999	1,066	5,263	0	101	5,114	981	1,08.9
2000	1,072	5,291	0	95	5,152	1,215	1,08.8
2001	1,083	5,515	126	117	5,155	1,566	1,08.1
2002	1,053	4,927	568	133	5,033	1,025	1,04.9
2003	1,016	4,451	211	193	4,613	845	95.7
2004	1,001	5,000	269	192	4,862	906	100.4
2005	980	4,768	125	218	4,853	914	99.8
2006	955	4,680	150	265	4,841	868	99.1
2007	945	4,600	150	265	4,761	822	97.1

표 3 북한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620	1,460	103	0	1,357	0	97.5
1971	625	1,510	88	0	1,422	0	99.0
1972	630	1,450	96	0	1,354	0	91.6
1973	635	1,630	286	0	1,344	0	88.7
1974	640	1,700	328	0	1,372	0	88.5
1975	640	1,765	89	0	1,676	0	106.1
1976	640	1,790	269	0	1,521	0	94.7
1977	640	1,920	412	0	1,508	0	92.4
1978	640	1,855	234	0	1,621	0	97.8
1979	640	1,920	284	0	1,636	0	97.2
1980	640	1,660	262	0	1,398	0	81.7
1981	640	1,910	204	0	1,706	0	98.1
1982	640	2,010	102	11	1,919	0	108.7
1983	645	2,064	31	0	2,033	0	113.5
1984	645	2,193	77	0	2,116	0	116.3
1985	645	2,113	20	28	2,121	0	114.8
1986	645	2,387	179	76	2,284	0	121.7
1987	645	2,219	236	0	1,983	0	104.0
1988	645	2,129	68	21	2,082	0	107.5
1989	630	2,142	43	27	2,126	0	108.0
1990	600	1,800	10	194	1,984	0	99.1
1991	600	1,600	0	10	1,610	0	79.1
1992	600	1,400	0	112	1,512	0	73.0
1993	600	1,100	0	81	1,181	0	56.1
1994	600	1,400	0	683	2,083	0	97.6
1995	580	1,300	0	203	1,503	0	69.7
1996	580	1,300	0	272	1,572	0	72.6
1997	600	1,500	0	250	1,750	0	81.1
1998	600	1,400	0	159	1,559	0	72.7
1999	600	1,600	0	400	2,000	0	93.3
2000	550	1,300	0	537	1,837	0	84.9
2001	550	1,350	0	654	2,004	0	91.3
2002	585	1,450	0	633	2,083	0	93.8
2003	585	1,460	0	366	1,826	0	81.3
2004	585	1,540	0	191	1,731	0	76.3
2005	585	1,600	0	41	1,641	0	71.6
2006	585	1,550	0	400	1,950	0	84.4
2007	585	1,550	0	400	1,950	0	83.7

표 4 일본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2,923	11,547	910	10	11,690	6,057	112.0
1971	2,695	9,907	217	0	12,459	3,288	117.9
1972	2,640	10,819	572	24	11,829	1,730	110.4
1973	2,622	11,056	305	57	11,017	1,521	101.3
1974	2,724	11,186	42	35	10,924	1,776	99.2
1975	2,764	11,980	0	20	10,700	3,076	95.9
1976	2,779	10,713	0	21	10,466	3,344	92.8
1977	2,757	11,916	91	64	10,026	5,207	88.0
1978	2,584	11,456	467	18	10,299	5,915	89.6
1979	2,497	10,882	648	14	10,102	6,061	87.2
1980	2,377	8,873	909	75	10,100	4,000	86.5
1981	2,278	9,337	304	66	10,642	2,457	90.5
1982	2,257	9,346	223	14	10,774	820	91.0
1983	2,273	9,433	230	169	10,192	0	85.5
1984	2,315	10,809	0	18	10,199	628	85.0
1985	2,342	10,612	0	20	10,150	1,110	84.0
1986	2,303	10,599	0	18	9,707	2,020	79.9
1987	2,146	9,671	0	16	9,805	1,902	80.3
1988	2,100	9,041	0	16	9,619	1,340	78.5
1989	2,097	9,416	0	18	9,782	992	79.5
1990	2,074	9,554	0	17	9,580	983	77.5
1991	2,049	8,740	0	18	9,504	237	76.7
1992	2,106	9,621	0	18	9,667	209	77.8
1993	2,139	7,129	0	2,623	9,943	18	79.8
1994	2,212	10,903	410	9	9,109	1,411	72.9
1995	2,118	9,781	0	451	8,968	2,675	71.5
1996	1,977	9,413	30	500	9,000	3,558	71.6
1997	1,953	9,123	574	499	9,093	3,513	72.2
1998	1,801	8,154	210	554	9,290	2,721	73.6
1999	1,788	8,350	200	639	9,426	2,084	74.5
2000	1,770	8,636	481	679	8,297	2,621	65.5
2001	1,706	8,242	45	655	8,779	2,694	69.2
2002	1,688	8,089	200	625	8,742	2,466	68.8
2003	1,665	7,091	200	700	8,357	1,700	65.7
2004	1,701	7,944	200	775	8,300	1,919	65.2
2005	1,706	8,257	200	669	8,250	2,395	64.8
2006	1,688	7,786	200	650	8,250	2,381	64.7
2007	1,650	7,943	200	700	8,150	2,674	63.9

표 5 중국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32,358	76,993	1,292	8	72,209	11,000	88.0
1971	34,918	80,643	1,426	19	77,236	13,000	91.7
1972	35,143	79,348	2,631	0	76,717	13,000	88.8
1973	35,090	85,215	2,060	102	80,257	16,000	90.9
1974	35,512	86,733	1,630	30	83,633	17,500	92.8
1975	35,729	87,892	876	114	85,130	19,500	92.7
1976	36,217	88,063	1,033	0	86,530	20,000	92.8
1977	35,526	89,996	1,435	0	87,561	21,000	92.5
1978	34,421	95,850	1,053	71	89,868	26,000	93.7
1979	33,344	100,625	1,116	18	96,527	29,000	99.3
1980	33,878	97,934	509	162	98,587	28,000	100.1
1981	33,293	100,768	446	263	101,085	27,500	101.4
1982	33,056	113,117	328	61	103,350	37,000	102.1
1983	33,136	118,206	1,125	131	105,212	49,000	102.3
1984	33,178	124,779	1,019	201	110,461	62,500	105.9
1985	32,070	117,999	957	352	111,894	68,000	105.8
1986	32,266	120,557	1,301	429	112,685	75,000	104.9
1987	32,139	121,716	698	421	115,939	80,500	106.0
1988	31,914	118,377	315	1,043	118,605	81,000	106.6
1989	32,700	126,091	326	57	120,822	86,000	106.8
1990	33,064	132,532	689	68	123,911	94,000	107.9
1991	32,590	128,667	933	93	126,827	95,000	109.0
1992	32,090	130,354	1,431	212	128,135	96,000	108.8
1993	30,360	124,390	1,518	968	129,340	90,500	108.6
1994	30,171	123,151	32	1,998	130,117	85,500	108.1
1995	30,745	129,650	265	852	131,237	84,500	107.9
1996	31,406	136,570	938	322	131,954	88,500	107.5
1997	31,765	140,490	3,734	261	132,700	92,817	107.1
1998	31,214	139,100	2,708	178	134,100	95,287	107.2
1999	31,284	138,936	2,951	278	134,200	97,350	106.5
2000	29,962	131,536	1,847	270	134,300	93,009	105.8
2001	28,812	124,306	1,963	304	136,500	79,156	106.9
2002	28,200	122,180	2,583	258	135,700	63,311	105.7
2003	26,508	112,462	880	1,122	132,100	43,915	102.3
2004	28,379	125,363	656	609	130,300	38,931	100.3
2005	28,847	126,414	1,216	654	128,000	36,783	98.0
2006	29,200	128,000	1,400	700	127,800	36,283	97.3
2007	29,600	129,700	1,500	900	129,100	36,283	97.7

표 6 대만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776	2,291	7	0	2,266	290	155.2
1971	753	2,152	28	3	2,139	278	143.4
1972	742	2,270	16	0	2,204	328	144.8
1973	724	2,097	54	80	2,254	197	145.2
1974	778	2,280	0	44	2,233	288	141.1
1975	790	2,319	0	7	2,159	455	133.9
1976	786	2,253	0	8	1,867	849	113.5
1977	778	2,384	250	10	2,173	820	129.5
1978	752	2,249	280	0	2,011	778	117.5
1979	721	2,254	411	0	2,008	613	115.1
1980	637	2,166	159	0	1,880	740	105.3
1981	667	2,185	86	13	1,812	1040	99.7
1982	659	2,284	547	1	1,811	967	97.9
1983	645	2,286	357	0	1,817	1079	96.6
1984	587	2,065	107	0	2,015	1022	105.6
1985	564	2,000	81	5	1,915	1031	99.0
1986	532	1,815	178	5	1,769	904	90.5
1987	501	1,748	189	4	1,710	757	86.5
1988	471	1,697	104	4	1,619	735	81.0
1989	475	1,716	68	2	1,585	800	78.4
1990	454	1,662	79	4	1,600	787	78.9
1991	429	1,673	229	4	1,645	590	80.3
1992	397	1,498	188	3	1,500	403	72.5
1993	403	1,636	102	4	1,475	466	70.6
1994	366	1,511	185	3	1,450	345	68.8
1995	363	1,517	279	5	1,375	213	64.6
1996	348	1,420	117	5	1,325	196	61.8
1997	364	1,463	74	4	1,325	264	61.3
1998	358	1,311	55	3	1,325	198	60.7
1999	353	1,349	113	5	1,315	124	59.8
2000	340	1,342	120	3	1,199	150	54.1
2001	338	1,245	156	23	1,150	112	51.6
2002	307	1,271	94	106	1,150	245	51.2
2003	272	1,164	90	135	1,150	304	50.9
2004	237	1,011	99	158	1,125	249	49.5
2005	269	1,033	26	65	985	336	43.0
2006	263	1,100	20	101	1,233	284	53.5
2007	258	1,044	20	166	1,173	301	50.6

표 7 태국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6,854	8,956	1,576	0	7,669	1,232	206.8
1971	7,095	9,071	2,112	0	7,013	1,178	183.6
1972	6,780	8,192	849	0	7,802	719	198.6
1973	7,680	9,834	1,046	0	8,228	1,279	204.2
1974	7,512	8,835	933	0	7,425	1,756	179.8
1975	8,357	10,098	1,870	0	8,266	1,718	195.5
1976	8,167	9,944	2,915	0	7,616	1,131	176.2
1977	8,750	9,188	1,573	0	7,518	1,228	170.3
1978	8,935	11,530	2,696	0	8,131	1,931	180.5
1979	8,654	10,400	2,681	0	8,129	1,521	176.7
1980	9,200	11,463	3,049	0	7,955	1,980	169.2
1981	9,105	11,732	3,620	0	8,082	2,010	168.6
1982	8,940	11,139	3,694	0	8,118	1,337	166.3
1983	9,606	12,902	4,528	0	8,273	1,438	166.5
1984	9,629	13,137	3,993	0	8,495	2,087	168.1
1985	9,833	13,374	4,334	0	8,624	2,503	168.0
1986	9,659	12,453	4,344	2	8,343	2,271	160.0
1987	9,147	12,162	4,791	0	8,500	1,142	160.7
1988	9,906	14,034	6,036	0	8,250	890	153.7
1989	9,879	13,597	3,938	0	8,567	1,982	157.3
1990	8,792	11,347	3,988	0	8,400	941	152.2
1991	9,053	13,464	4,876	0	8,400	1,129	150.2
1992	9,160	13,145	4,971	0	8,500	803	150.0
1993	8,676	12,672	4,720	0	8,500	255	148.1
1994	9,196	14,124	5,943	0	8,250	186	141.9
1995	9,032	14,388	5,281	0	8,443	850	143.4
1996	9,267	13,662	5,216	0	8,590	706	144.2
1997	9,937	15,510	6,367	0	8,800	1,049	146.1
1998	9,900	15,589	6,679	1	8,900	1,060	146.3
1999	9,970	16,500	6,549	0	9,050	1,961	147.4
2000	9,891	17,057	7,521	0	9,250	2,247	149.5
2001	10,125	17,499	7,245	15	9,400	3,116	150.8
2002	10,158	17,198	7,552	0	9,460	3,302	150.6
2003	10,315	18,011	10,137	0	9,470	1,706	149.7
2004	9,995	17,360	7,274	0	9,480	2,312	148.8
2005	10,220	18,200	7,376	2	9,544	3,594	148.7
2006	10,270	18,250	8,600	5	9,870	3,379	152.7
2007	10,360	18,400	9,000	7	9,600	3,186	147.5

표 8 베트남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4,631	6,445	3	600	7,042	0	165.4
1971	4,807	6,646	3	910	7,553	0	173.2
1972	4,900	6,986	0	760	7,746	0	173.5
1973	5,030	7,231	0	865	8,096	0	177.0
1974	5,112	7,165	1	640	7,804	0	166.4
1975	4,940	6,850	2	805	7,653	0	159.2
1976	5,314	7,849	6	265	8,108	0	164.6
1977	5,409	7,075	5	71	7,141	0	141.3
1978	5,142	6,526	0	247	6,773	0	131.1
1979	5,483	6,993	33	200	7,160	0	135.9
1980	5,468	7,697	5	30	7,722	0	143.8
1981	5,722	8,605	15	150	8,740	0	159.2
1982	5,708	9,901	140	30	9,791	0	174.4
1983	5,742	10,145	83	322	10,384	0	180.8
1984	5,842	10,633	60	336	10,909	0	185.7
1985	5,825	10,371	125	482	10,728	0	178.5
1986	5,679	9,688	153	150	9,685	0	157.6
1987	5,732	11,502	97	11	11,416	0	181.7
1988	5,982	12,044	1,383	2	10,663	0	166.1
1989	6,053	12,771	1,670	0	11,101	0	168.5
1990	6,278	12,393	1,048	0	11,345	0	168.6
1991	6,490	14,638	1,914	0	12,724	0	185.4
1992	6,623	14,641	1,592	0	13,049	0	186.6
1993	6,643	16,049	2,264	0	13,785	0	193.5
1994	6,803	16,246	2,314	10	13,942	0	192.2
1995	7,124	17,683	3,040	1	14,394	250	195.1
1996	7,040	18,003	3,327	1	14,477	450	193.2
1997	7,377	19,094	3,776	0	15,000	768	197.2
1998	7,575	20,108	4,555	60	15,500	881	201.1
1999	7,660	20,926	3,370	40	17,552	925	224.8
2000	7,493	20,473	3,528	40	16,932	978	214.2
2001	7,471	21,036	3,245	40	17,966	843	224.6
2002	7,463	21,527	3,795	40	17,447	1168	215.6
2003	7,468	22,082	4,295	300	18,230	1025	222.9
2004	7,450	22,716	5,174	320	17,595	1292	212.8
2005	7,314	22,772	4,705	350	18,392	1317	220.2
2006	7,385	22,700	4,700	450	18,500	1267	219.2
2007	7,350	22,994	4,700	450	18,750	1261	219.9

표 9 캄보디아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2,399	2,479	32	20	2,467	0	333.6
1971	1,880	1,776	18	92	1,850	0	250.4
1972	1,548	1,252	0	157	1,409	0	189.1
1973	811	683	0	225	908	0	120.5
1974	555	413	0	350	763	0	100.3
1975	1,050	900	0	0	900	0	120.2
1976	1,400	1,080	20	0	1,060	0	146.8
1977	1,500	1,080	19	0	1,061	0	152.0
1978	1,400	900	0	200	1,100	0	163.0
1979	672	941	0	317	1,258	0	187.3
1980	1,417	1,080	0	132	1,212	0	176.4
1981	1,317	939	0	36	975	0	138.1
1982	1,615	1,290	0	0	1,290	0	177.4
1983	1,611	1,285	0	7	1,292	0	172.3
1984	1,063	793	0	4	797	0	104.1
1985	1,541	1,127	0	15	1,142	0	146.3
1986	1,532	1,314	0	0	1,314	0	162.9
1987	1,600	1,307	0	0	1,307	0	156.1
1988	1,670	1,556	0	17	1,573	0	181.0
1989	1,640	1,682	0	1	1,683	0	186.6
1990	1,740	1,323	0	55	1,378	0	147.3
1991	1,670	1,510	0	23	1,533	0	158.0
1992	1,700	1,400	0	34	1,434	0	141.3
1993	1,800	1,500	0	10	1,510	0	141.9
1994	1,700	1,400	12	38	1,426	0	129.5
1995	1,900	2,150	0	24	2,174	0	192.7
1996	1,950	2,070	0	7	2,077	0	179.9
1997	1,930	2,150	0	43	2,193	0	186.1
1998	1,960	2,200	1	30	2,229	0	185.6
1999	2,070	2,545	0	38	2,583	0	211.1
2000	1,903	2,536	0	39	2,575	0	206.6
2001	1,980	2,583	0	42	2,625	0	206.8
2002	2,000	2,400	10	65	2,455	0	189.9
2003	2,240	2,960	300	65	2,725	0	207.1
2004	2,100	2,630	200	350	2,780	0	207.5
2005	2,400	3,780	350	150	3,580	0	262.5
2006	2,400	4,000	450	150	3,700	0	266.5
2007	2,450	4,075	450	150	3,775	0	267.1

표 10 미얀마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4,809	5,112	844	0	4,268	0	155.8
1971	4,764	5,120	570	0	4,550	0	162.9
1972	4,528	4,608	157	0	4,451	0	156.3
1973	4,880	5,375	214	0	5,161	0	176.5
1974	4,884	5,365	307	0	5,058	0	169.7
1975	5,030	5,756	657	0	5,099	0	168.1
1976	4,912	5,825	690	0	5,135	0	166.3
1977	4,864	5,913	375	0	5,538	0	176.3
1978	5,011	6,581	590	0	5,991	0	188.0
1979	4,442	6,531	675	0	5,856	0	180.7
1980	4,801	6,675	674	0	6,001	0	181.5
1981	4,811	6,725	701	0	6,024	0	178.9
1982	4,560	6,850	750	0	6,100	0	177.8
1983	4,661	7,200	727	0	6,473	0	185.1
1984	4,603	7,075	450	0	6,625	0	185.7
1985	4,660	7,130	660	0	6,270	200	172.5
1986	4,666	7,080	493	0	6,480	307	175.2
1987	4,483	6,840	368	0	6,600	179	175.4
1988	4,527	7,500	452	0	6,725	502	176.1
1989	4,733	8,100	192	0	7,050	1,360	182.1
1990	4,797	7,943	176	0	7,350	1,777	187.3
1991	4,524	7,424	185	0	7,650	1,366	192.5
1992	4,855	7,772	222	0	8,050	866	200.6
1993	5,443	8,750	587	2	8,350	681	205.8
1994	5,517	9,280	645	0	8,650	666	210.2
1995	5,666	9,860	265	0	8,850	1,411	212.0
1996	5,600	9,000	15	0	9,050	1,346	213.9
1997	5,600	8,900	94	0	9,250	902	216.0
1998	5,600	9,280	57	1	9,350	776	215.7
1999	6,000	9,860	159	7	9,500	984	216.8
2000	6,000	10,771	670	3	9,700	1,388	219.0
2001	6,200	10,440	1,002	3	9,900	929	221.2
2002	6,200	10,788	388	0	10,100	1,229	223.5
2003	6,300	10,730	130	0	10,200	1,629	223.5
2004	6,800	9,570	190	0	10,300	709	223.3
2005	7,000	10,440	47	0	10,400	702	223.2
2006	7,000	10,600	100	0	10,500	702	223.5
2007	7,000	10,660	100	0	10,700	562	225.9

표 11 말레이시아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697	1,091	0	356	1,345	305	123.3
1971	710	1,176	0	235	1,462	254	130.9
1972	750	1,187	14	213	1,538	102	134.4
1973	739	1,279	10	298	1,547	122	132.1
1974	740	1,360	0	334	1,565	251	130.6
1975	750	1,299	0	145	1,561	134	127.2
1976	730	1,297	0	210	1,470	171	117.1
1977	723	1,224	0	283	1,453	225	113.1
1978	583	966	0	405	1,300	296	99.0
1979	738	1,351	0	239	1,494	392	111.1
1980	696	1,318	0	167	1,500	377	109.0
1981	679	1,084	0	317	1,470	308	104.3
1982	635	1,059	10	393	1,450	300	100.4
1983	648	1,145	0	388	1,519	314	102.7
1984	626	1,010	0	424	1,586	162	104.6
1985	649	1,258	0	420	1,520	320	97.8
1986	635	1,150	0	212	1,512	170	94.8
1987	629	1,092	1	196	1,347	110	82.5
1988	655	1,148	0	289	1,437	110	85.9
1989	612	1,147	0	378	1,510	125	88.2
1990	662	1,302	0	298	1,490	235	85.1
1991	650	1,150	0	367	1,527	225	85.3
1992	660	1,190	0	470	1,585	300	86.5
1993	668	1,300	0	390	1,650	340	88.0
1994	665	1,325	0	319	1,709	275	89.1
1995	663	1,330	0	402	1,715	292	87.5
1996	660	1,300	0	563	1,705	450	85.1
1997	655	1,280	1	638	1,837	530	89.7
1998	640	1,255	0	630	1,940	475	92.8
1999	660	1,290	0	617	1,957	425	91.6
2000	665	1,410	0	596	1,946	485	89.3
2001	643	1,350	13	633	2,010	445	90.4
2002	667	1,418	0	480	2,020	323	89.1
2003	672	1,470	13	500	2,030	250	87.9
2004	652	1,415	0	700	2,050	315	87.2
2005	660	1,440	0	751	2,150	356	89.8
2006	645	1,400	13	900	2,175	468	89.2
2007	660	1,450	0	800	2,300	418	92.7

표 12 인도네시아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8,135	13,140	0	516	13,634	552	111.5
1971	8,324	13,724	0	762	14,206	832	113.9
1972	7,898	13,183	0	1,638	14,742	911	115.8
1973	8,404	14,607	0	1,056	15,295	1,279	117.8
1974	8,537	15,276	0	671	15,994	1,232	120.7
1975	8,495	15,185	0	1,309	16,706	1,020	123.5
1976	8,369	15,845	0	1,989	17,395	1,459	125.9
1977	8,360	15,876	0	1,824	18,083	1,076	128.1
1978	8,929	17,525	0	1,934	18,913	1,622	131.1
1979	8,804	17,872	14	2,040	19,756	1,764	134.1
1980	9,382	22,286	64	543	21,504	3,025	142.9
1981	8,988	22,837	0	364	23,149	3,077	150.8
1982	9,162	24,006	0	1,068	24,679	3,472	157.5
1983	9,764	25,933	0	419	25,460	4,364	159.3
1984	9,902	26,542	392	53	26,092	4,475	160.1
1985	9,896	27,014	212	24	26,738	4,563	161.0
1986	9,800	26,051	150	131	27,392	3,203	161.9
1987	9,800	27,089	0	50	28,053	2,289	162.8
1988	10,530	29,072	104	384	28,723	2,918	163.7
1989	10,502	29,366	0	77	29,410	2,951	164.7
1990	10,282	29,042	0	192	30,121	2,064	165.7
1991	11,103	31,350	0	539	30,838	3,115	166.8
1992	11,012	31,318	472	22	31,375	2,608	166.8
1993	10,735	30,315	222	1,120	32,097	1,724	167.8
1994	11,439	32,333	0	3,081	32,922	4,216	169.3
1995	11,570	33,215	0	1,081	33,461	5,051	169.2
1996	11,137	32,084	0	839	33,911	4,063	168.6
1997	11,730	31,118	0	5,765	34,667	6,279	169.6
1998	11,963	32,147	0	3,729	35,033	7,122	168.8
1999	11,790	32,800	0	1,500	35,400	6,022	168.0
2000	11,600	32,960	0	1,500	35,877	4,605	167.8
2001	11,600	32,960	0	3,500	36,382	4,683	167.7
2002	11,500	33,411	0	2,750	36,500	4,344	165.9
2003	11,900	35,024	0	650	36,000	4,018	161.4
2004	11,650	34,830	50	500	35,850	3,448	158.6
2005	11,800	34,959	0	539	35,739	3,207	156.1
2006	11,400	33,300	0	1,900	35,550	2,857	153.3
2007	11,600	34,000	0	1,600	36,150	2,307	154.0

표 13 필리핀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3,195	3,403	0	20	3,601	620	93.3
1971	3,332	3,248	0	601	3,815	654	96.0
1972	3,194	2,835	0	238	3,326	401	81.4
1973	3,528	3,621	0	311	3,541	792	84.3
1974	3,632	3,694	0	237	3,855	868	89.3
1975	3,674	4,052	0	71	4,258	733	96.0
1976	3,641	4,280	0	24	4,244	793	93.1
1977	3,602	4,607	47	7	4,196	1,164	89.6
1978	3,561	4,846	36	0	4,476	1,498	92.9
1979	3,637	5,093	236	0	4,737	1,618	95.6
1980	3,459	5,020	179	0	4,989	1,470	97.9
1981	3,443	5,270	3	0	5,267	1,470	100.9
1982	3,240	5,025	11	0	5,186	1,298	97.0
1983	3,141	5,097	30	10	5,460	915	99.8
1984	3,222	5,330	0	401	5,692	954	101.7
1985	3,403	5,913	0	329	5,844	1,352	102.0
1986	3,402	5,831	110	0	5,745	1,328	98.0
1987	3,280	5,642	0	25	5,765	1,230	96.0
1988	3,485	5,996	16	195	6,305	1,100	102.7
1989	3,445	5,785	0	575	6,260	1,200	99.7
1990	3,433	6,425	0	350	6,154	1,821	95.7
1991	3,288	5,936	0	0	6,263	1,494	95.2
1992	3,237	6,190	0	0	6,350	1,334	94.5
1993	3,445	6,450	0	215	6,725	1,274	98.0
1994	3,668	6,809	0	0	7,142	941	101.9
1995	3,924	7,263	0	975	7,509	1,670	104.7
1996	3,909	7,265	0	682	8,027	1,590	109.4
1997	3,501	6,488	0	1,288	7,800	1,566	104.0
1998	3,630	6,674	0	1,725	8,000	1,965	104.5
1999	3,995	7,772	0	665	8,400	2,002	107.5
2000	4,030	8,135	0	1,410	8,750	2,797	109.7
2001	4,080	8,450	0	1,200	9,040	3,407	111.1
2002	4,100	8,450	0	1,500	9,550	3,807	115.1
2003	4,094	9,200	0	1,290	10,250	4,047	121.1
2004	4,100	9,425	0	1,500	10,400	4,572	120.6
2005	4,084	9,820	0	1,622	10,722	5,292	122.0
2006	4,175	10,050	0	1,800	11,550	5,592	129.1
2007	4,200	10,010	0	1,800	12,060	5,342	132.4

표 14 인도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37,592	42,225	20	307	41,512	6,000	75.0
1971	37,758	43,068	10	133	43,541	5,650	76.8
1972	36,688	39,245	15	0	40,780	4,100	70.4
1973	38,286	44,051	35	65	43,181	5,000	72.9
1974	37,889	39,579	18	155	43,502	1,214	71.8
1975	39,475	48,740	38	230	43,646	6,500	70.5
1976	38,511	41,917	23	42	43,436	5,000	68.7
1977	40,282	52,617	143	10	49,484	8,000	76.7
1978	40,482	53,773	450	10	50,333	11,000	76.5
1979	39,414	42,330	425	5	45,910	7,000	68.4
1980	40,152	53,631	900	70	53,301	6,500	77.8
1981	40,708	53,248	675	10	54,083	5,000	77.3
1982	38,262	47,116	200	80	48,496	3,500	68.0
1983	41,244	60,097	220	850	58,227	6,000	79.9
1984	41,159	58,337	160	10	56,687	7,500	76.2
1985	41,137	63,825	250	5	62,080	9,000	81.7
1986	40,774	60,416	350	5	60,071	9,000	77.5
1987	38,806	56,862	200	650	59,312	7,000	75.0
1988	41,736	70,489	450	650	65,689	12,000	81.5
1989	42,167	73,573	500	50	71,123	14,000	86.5
1990	42,687	74,291	700	0	73,091	14,500	87.2
1991	42,650	74,680	600	15	74,595	14,000	87.4
1992	41,775	72,868	650	55	75,273	11,000	86.6
1993	42,034	80,300	750	0	76,050	14,500	85.9
1994	42,500	81,810	4,150	0	77,660	14,500	86.2
1995	42,300	76,980	3,700	0	76,280	11,500	83.1
1996	43,283	81,730	2,100	0	81,630	9,500	87.3
1997	43,420	82,540	4,000	12	77,552	10,500	81.5
1998	44,600	86,080	3,350	4	81,234	12,000	83.8
1999	45,160	89,680	1,400	86	82,650	17,716	83.8
2000	44,361	84,980	1,685	0	75,960	25,051	75.7
2001	44,600	93,340	6,300	0	87,611	24,480	85.7
2002	40,400	71,820	5,440	0	79,860	11,000	76.8
2003	42,400	88,530	3,100	0	85,630	10,800	81.0
2004	42,300	83,130	4,569	0	80,861	8,500	75.2
2005	43,400	91,790	4,688	6	85,088	10,520	77.8
2006	44,000	92,760	4,500	0	87,350	11,430	78.6
2007	44,000	92,000	4,100	0	89,120	10,210	78.9

표 15 파키스탄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1,503	2,200	182	0	2,018	457	30.7
1971	1,457	2,226	198	109	1,986	608	29.4
1972	1,480	2,288	789	0	1,813	294	26.1
1973	1,513	2,455	505	0	1,857	387	26.1
1974	1,604	2,310	470	0	1,857	370	25.5
1975	1,710	2,617	763	0	1,961	263	26.2
1976	1,749	2,737	883	0	1,940	177	25.4
1977	1,899	2,950	810	0	1,947	370	24.9
1978	2,026	3,272	1,015	0	2,118	509	26.5
1979	2,034	3,216	1,086	0	2,389	250	29.0
1980	1,933	3,123	1,163	0	1,981	229	23.2
1981	1,976	3,430	840	0	2,379	440	26.9
1982	1,978	3,445	1,146	0	2,250	489	24.6
1983	1,998	3,339	1,172	0	2,120	536	22.5
1984	1,998	3,315	836	0	2,200	815	22.8
1985	1,863	2,919	1,297	0	1,857	580	18.8
1986	2,066	3,486	1,300	0	2,050	716	20.1
1987	1,963	3,241	999	0	2,139	819	20.3
1988	2,042	3,200	792	0	2,100	1,127	19.4
1989	2,107	3,220	749	0	2,250	1,348	20.2
1990	2,114	3,265	1,274	0	2,100	1,239	18.3
1991	2,097	3,243	1,419	0	2,150	913	18.3
1992	1,974	3,116	918	0	2,250	861	18.7
1993	2,188	3,995	1,232	0	2,300	1,324	18.8
1994	2,125	3,447	1,660	0	2,400	711	19.1
1995	2,162	3,967	1,632	0	2,531	515	19.7
1996	2,252	4,307	1,834	0	2,550	438	19.3
1997	2,316	4,333	2,099	0	2,550	122	18.8
1998	2,424	4,674	1,837	0	2,575	384	18.5
1999	2,515	5,156	2,104	0	2,600	836	18.2
2000	2,376	4,802	2,429	0	2,615	594	17.9
2001	2,115	3,882	1,628	0	2,540	308	16.9
2002	2,225	4,479	1,992	0	2,545	250	16.6
2003	2,461	4,848	1,868	0	2,595	635	16.6
2004	2,520	5,025	2,801	0	2,550	309	16.0
2005	2,620	5,547	3,664	0	1,896	296	11.7
2006	2,575	5,200	3,100	0	2,136	260	12.9
2007	2,550	5,300	3,200	0	2,110	250	12.5

표 16 방글라데시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9,912	11,143	0	347	11,490	69	170.5
1971	9,257	9,932	0	681	10,613	69	153.3
1972	9,629	10,090	0	384	10,418	125	147.2
1973	9,878	11,909	0	81	11,950	165	164.9
1974	9,793	11,287	0	262	11,571	143	154.9
1975	10,329	12,762	0	390	12,839	456	168.4
1976	9,882	11,753	0	193	12,266	136	157.4
1977	10,028	12,969	0	305	13,060	350	162.4
1978	10,114	12,849	0	60	13,157	102	158.6
1979	10,064	12,740	0	720	13,242	320	154.9
1980	10,309	13,882	0	84	13,590	696	154.3
1981	10,459	13,631	20	144	14,113	338	155.7
1982	10,587	14,216	0	317	14,571	300	156.6
1983	10,546	14,500	0	180	14,890	90	156.1
1984	10,140	14,620	0	690	14,925	475	152.9
1985	10,403	15,040	0	39	15,201	353	152.4
1986	10,609	15,406	0	261	15,789	231	155.2
1987	10,322	15,413	0	691	15,800	535	152.3
1988	10,220	15,550	0	120	15,897	308	150.3
1989	10,478	17,860	0	324	17,674	818	163.9
1990	10,435	17,852	0	11	18,153	528	165.2
1991	10,240	18,250	0	39	18,138	679	162.0
1992	10,160	18,340	0	10	18,586	443	163.5
1993	9,980	18,041	0	100	18,300	284	158.5
1994	9,922	16,833	0	1,300	18,267	150	155.8
1995	9,941	17,687	0	1,140	18,366	611	154.1
1996	10,414	18,882	0	46	19,139	400	157.9
1997	10,263	18,862	0	1,200	20,062	400	162.7
1998	9,689	19,854	0	2,500	21,854	900	174.0
1999	10,708	23,066	0	400	23,766	600	185.8
2000	10,887	25,086	0	672	24,958	1400	191.4
2001	10,666	24,310	0	243	25,553	400	192.2
2002	10,777	25,187	0	955	26,100	442	192.4
2003	10,902	26,152	0	850	26,700	744	192.8
2004	11,000	25,600	0	725	26,900	169	190.3
2005	11,100	28,758	0	514	29,000	441	200.9
2006	11,200	29,150	0	750	29,900	441	202.9
2007	11,240	29,400	0	400	29,900	341	198.7

표 17 유럽연합(27)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
1971	-	-	-	-	-	-	-
1972	-	-	-	-	-	-	-
1973	-	-	-	-	-	-	-
1974	-	-	-	-	-	-	-
1975	-	-	-	-	-	-	-
1976	-	-	-	-	-	-	-
1977	-	-	-	-	-	-	-
1978	-	-	-	-	-	-	-
1979	-	-	-	-	-	-	-
1980	-	-	-	-	-	-	-
1981	-	-	-	-	-	-	-
1982	-	-	-	-	-	-	-
1983	-	-	-	-	-	-	-
1984	-	-	-	-	-	-	-
1985	-	-	-	-	-	-	-
1986	-	-	-	-	-	-	-
1987	-	-	-	-	-	-	-
1988	-	-	-	-	-	-	-
1989	-	-	-	-	-	-	-
1990	-	-	-	-	-	-	-
1991	-	-	-	-	-	-	-
1992	-	-	-	-	-	-	-
1993	-	-	-	-	-	-	-
1994	-	-	-	-	-	-	-
1995	-	-	-	-	-	-	-
1996	-	-	-	-	-	-	-
1997	-	-	-	-	-	-	-
1998	-	-	-	-	-	-	-
1999	405	1,738	364	1,207	2,544	888	5.3
2000	409	1,584	286	1,310	2,608	888	5.4
2001	406	1,639	336	1,254	2,567	878	5.3
2002	406	1,741	250	1,288	2,697	960	5.6
2003	416	1,741	225	1,125	2,627	974	5.4
2004	432	1,880	175	1,090	2,631	1,138	5.4
2005	420	1,741	161	1,126	2,651	1,193	5.4
2006	410	1,691	150	1,100	2,700	1,134	5.5
2007	404	1,659	150	1,100	2,750	993	5.6

표 18 미국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734	2,796	1,461	48	1,308	611	6.4
1971	736	2,838	1,804	36	1,309	372	6.3
1972	736	2,828	1,726	17	1,324	167	6.3
1973	878	3,034	1,604	7	1,349	255	6.4
1974	124	3,667	2,194	0	1,496	232	7.0
1975	1,140	4,099	1,732	0	1,394	1,205	6.5
1976	1,004	3,781	2,097	3	1,618	1,274	7.4
1977	910	3,120	2,270	3	1,248	879	5.7
1978	1,202	4,271	2,431	3	1,708	1,014	7.7
1979	1,161	4,298	2,716	3	1,761	838	7.8
1980	1,340	4,810	3,064	6	2,046	544	9.0
1981	1,535	5,979	2,695	13	2,238	1,603	9.7
1982	1,320	4,960	2,222	22	2,056	2,307	8.8
1983	878	3,215	2,267	29	1,803	1,481	7.7
1984	1,134	4,382	1,960	51	1,911	2,043	8.1
1985	1,008	4,332	1,885	70	2,078	2,482	8.7
1986	955	4,307	2,719	83	2,493	1,660	10.4
1987	944	4,109	2,289	95	2,580	995	10.6
1988	1,174	5,186	2,786	121	2,649	867	10.8
1989	1,087	5,087	2,537	139	2,690	866	10.9
1990	1,142	5,098	2,331	151	2,981	803	11.9
1991	1,125	5,096	2,128	169	3,064	876	12.1
1992	1,267	5,704	2,515	195	3,008	1,252	11.7
1993	1,146	5,053	2,544	220	3,141	840	12.1
1994	1,342	6,384	3,286	256	3,173	1,021	12.0
1995	1,252	5,628	2,694	245	3,390	810	12.7
1996	1,135	5,453	2,488	334	3,243	866	12.0
1997	1,256	5,750	2,755	294	3,278	877	12.0
1998	1,318	5,798	2,730	336	3,587	694	13.0
1999	1,421	6,502	2,804	321	3,846	867	13.8
2000	1,230	5,941	2,590	345	3,676	887	13.0
2001	1,341	6,714	2,954	419	3,850	1,216	13.5
2002	1,298	6,536	3,860	471	3,534	829	12.3
2003	1,213	6,420	3,310	478	3,656	761	12.6
2004	1,346	7,462	3,496	419	3,935	1,211	13.4
2005	1,361	7,113	3,660	544	3,838	1,370	13.0
2006	1,142	6,239	2,995	667	3,932	1,349	13.2
2007	1,103	6,088	3,262	683	3,990	868	13.2

표 19 브라질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4,764	3,668	143	1	4,546	34	47.5
1971	4,821	4,170	20	9	3,770	423	38.4
1972	4,794	4,510	49	11	4,701	194	46.6
1973	4,463	4,408	30	20	4,472	120	43.2
1974	5,250	4,760	3	40	4,455	462	42.0
1975	6,000	5,780	182	0	4,972	1,088	45.7
1976	5,400	5,440	388	0	5,325	815	47.7
1977	5,200	5,087	65	78	5,591	324	48.9
1978	5,425	5,163	0	736	5,768	455	49.2
1979	6,469	6,554	0	242	6,120	1,131	51.0
1980	6,100	5,874	50	0	6,256	699	50.9
1981	5,963	6,225	14	180	6,392	698	50.8
1982	5,100	5,304	7	340	6,181	154	47.9
1983	5,350	6,120	0	41	6,069	246	46.0
1984	4,820	5,960	0	700	6,212	694	46.1
1985	5,585	6,675	0	1,300	6,675	1,994	48.6
1986	5,980	7,193	0	50	7,058	2,179	50.4
1987	5,961	8,024	20	64	7,100	3,147	49.7
1988	5,350	7,540	5	180	7,475	3,387	51.3
1989	4,180	5,420	0	405	7,643	1,569	51.4
1990	4,230	6,800	0	965	7,675	1,659	50.8
1991	4,614	6,868	0	450	7,700	1,277	50.2
1992	4,384	6,733	0	716	7,750	976	49.7
1993	4,390	7,150	0	980	7,765	1,341	49.0
1994	4,242	7,640	11	895	7,780	2,085	48.3
1995	3,858	6,818	8	770	7,815	1,850	47.8
1996	3,572	6,476	10	849	7,850	1,315	47.3
1997	3,069	5,754	5	1,400	7,875	589	46.7
1998	3,840	7,876	46	900	7,950	1,369	46.5
1999	3,655	7,768	58	602	8,025	1,656	46.3
2000	3,142	6,933	22	654	8,050	1,171	45.9
2001	3,149	7,067	25	625	8,300	538	46.7
2002	3,186	7,050	19	1,117	8,100	586	45.0
2003	3,732	8,709	79	813	8,687	1,342	47.7
2004	3,921	8,996	282	550	8,860	1,746	48.1
2005	2,996	7,874	282	750	8,974	1,114	48.2
2006	2,975	7,700	125	850	8,950	589	47.6
2007	3,000	7,850	100	950	8,900	389	46.8

표 20 이집트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480	1,745	515	0	1,230	0	36.6
1971	487	1,796	456	0	1,340	0	39.2
1972	481	1,680	298	0	1,382	0	39.7
1973	450	1,524	136	0	1,388	0	39.1
1974	442	1,502	104	1	1,399	0	38.6
1975	442	1,624	211	0	1,413	0	38.2
1976	453	1,541	223	7	1,325	0	35.1
1977	437	1,522	150	7	1,379	0	35.6
1978	433	1,575	95	1	1,481	0	37.0
1979	435	1,682	178	0	1,504	0	36.5
1980	408	1,597	134	7	1,470	0	34.5
1981	402	1,498	22	0	1,476	0	33.4
1982	430	1,633	21	0	1,612	0	35.3
1983	421	1,636	65	0	1,571	0	33.4
1984	412	1,561	16	3	1,548	0	31.9
1985	389	1,549	92	61	1,518	0	30.3
1986	459	1,830	105	11	1,736	0	33.6
1987	423	1,562	108	15	1,469	0	27.8
1988	352	1,427	32	1	1,396	0	25.8
1989	352	1,427	85	3	1,345	0	24.3
1990	435	2,122	159	0	1,813	150	32.0
1991	462	2,313	209	0	2,054	200	35.3
1992	510	2,427	135	0	2,289	203	38.5
1993	538	2,540	268	3	2,375	103	39.1
1994	575	2,830	163	2	2,492	280	40.2
1995	560	2,600	338	1	2,443	100	38.6
1996	591	2,989	201	0	2,619	269	40.5
1997	630	3,510	426	16	2,769	600	41.9
1998	504	2,645	320	46	2,771	200	41.0
1999	654	3,787	500	35	2,891	631	41.9
2000	655	3,965	705	11	3,015	887	42.8
2001	563	3,575	468	0	3,100	894	43.1
2002	588	3,705	579	50	3,200	870	43.6
2003	615	3,900	826	0	3,225	719	43.2
2004	645	4,128	1,095	0	3,250	502	42.7
2005	668	4,135	958	28	3,275	432	42.2
2006	670	4,383	1,000	100	3,300	615	41.8
2007	675	4,407	1,100	0	3,468	454	43.2

표 21 나이지리아 쌀 수급통계

연도	수확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254	284	0	1	285	0	5.6
1971	263	307	0	6	313	0	6.0
1972	275	310	0	11	321	0	6.0
1973	280	342	0	2	344	0	6.2
1974	285	348	0	4	352	0	6.2
1975	300	390	0	6	396	0	6.8
1976	310	406	0	94	500	0	8.3
1977	325	412	0	446	750	108	12.1
1978	414	394	0	789	950	341	14.8
1979	400	372	0	242	845	110	12.7
1980	550	523	5	394	850	172	12.4
1981	600	579	5	686	1,227	205	17.3
1982	600	648	12	666	1,337	170	18.3
1983	630	607	10	903	1,648	22	22.2
1984	670	579	0	629	1,220	10	16.1
1985	710	680	0	569	1,249	10	16.1
1986	660	630	0	462	1,042	60	13.1
1987	745	1,184	0	642	1,152	734	14.1
1988	1,041	1,249	0	344	1,350	977	16.1
1989	1,652	1,982	0	164	1,550	1,573	18.0
1990	1,208	1,500	0	224	2,757	540	31.1
1991	1,652	1,911	0	296	2,207	540	24.3
1992	1,664	1,956	0	440	2,436	500	26.1
1993	1,564	1,839	0	382	2,221	500	23.2
1994	1,666	1,320	0	300	2,000	120	20.3
1995	1,700	1,752	0	300	2,000	172	19.8
1996	1,658	1,950	0	350	2,252	220	21.7
1997	1,650	1,850	0	731	2,601	200	24.5
1998	1,650	1,900	0	900	2,750	250	25.3
1999	1,660	2,000	0	950	2,900	300	26.0
2000	1,650	2,000	0	1,250	3,050	500	26.7
2001	1,650	2,100	0	1,906	3,500	1,006	29.9
2002	1,660	2,200	0	1,897	3,750	1,353	31.3
2003	1,800	2,200	0	1,448	4,000	1,001	32.6
2004	1,850	2,300	0	1,369	4,250	420	33.8
2005	2,000	2,700	0	1,777	4,350	547	33.8
2006	2,050	2,900	0	1,600	4,450	597	33.8
2007	2,200	3,000	0	1,700	4,700	597	34.8

참고자료

<http://www.fas.usda.gov/psd>

M45-84 세계농업뉴스 제84호 (2007. 8)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7년 8월

발 행 2007년 8월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